



## '18.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2018.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18. 9월 3차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18. 9. 14.(금) 14:00~18:00
-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13명 외부위원(9), 내부위원(4)
- ◆ 심의안건 : 20건
- ◆ 심의결과 : 적정 17건, 부적정 3건

### 2018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3일차)

간 사(시정연구팀장)

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고 계신 분도 계신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술용역심의 간사를 맡은 조직담당관 시정연구팀장 000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위원회 심의위원장이신 서울시립대학교 000 교수님이십니다.

위 원 장(0 0 0 위원)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간 사(시정연구팀장)

서강대학교 000 교수님 오고 계시고요.  
건국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국립생태원 000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세종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 0 0 위원

안녕하세요.

( 일동 박수! )

간 사(시정연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0 0 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평가담당관 0 0 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예산담당관 0 0 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조직담당관 0 0 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일단 총 14분 중에 8분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심의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정기학술용역심의회는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총 3일에 걸쳐 총 64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의회 마지막 날로 20건, 예상 금액은 23억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19년 예산편성분이 정기 건이 11건이고, 18년 예산분이 수시 건이 9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개요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회 1일차와 2일차의 심의결과는 회의개요 1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44건 84억을 심의했고, 34건 63억이 적정 의결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학술용역에 한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엄격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심위원님과 내부위원의 사전 검토보고서를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의개요를,

0 0 0 위원

000 교수님.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방금 오셨는데요.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 0 0 위원

안녕하세요.

( 일동 박수! )

위 원 장(0 0 0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학술용역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000입니다.

지난 주, 그다음에 어제, 오늘 하면 총 64건에 대한 심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안건은 20건입니다.

20건을 상정을 합니다.

심의방법을 설명 드리면, 먼저 사업부서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과 사업부서 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서가 퇴장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신 의견을 교환하는, 그래서 이 사업부서하고 의견을 교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질의를 중심으로 해주시고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질의와 의견을 구분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거수를

통해서 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심의하셔야 될 기준은 타당성, 필요성, 그다음에 과업내용, 기간, 용역비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적정성을 검토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종적으로 적정, 거부적정에 대한 여부를 거수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모든 내용은 보완의견에, 심의의결서에 보완의견에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읽어야 되겠네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5항에 따라서, 출석 위원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팀장 발표 3분, 위원님이 팀장한테 질의하는 게 5분, 그래서 총 8분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은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명을 제외한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은 속기록으로 작성이 돼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총20건이고요.

어제는 25개를 했는데, 2시부터 시작해서 5시45분에 끝났습니다.

다만,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전검토서를 잘 보시면 그 번호의 학술용역명 맨 위에 보면 18년 수시포괄비, 어떤 거는 자체예산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포괄비라고 하는 거는 조직과에서 시의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시급하게 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내려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보시다 보면 3번 같은 경우에 자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로 올리고 시에서 ‘이거를 하라, 마라.’ 해서 예산을 잡아주는 것을 하는 건데, 이거는 ‘자체에 예산이 남아있어서 자체 그 국이나 그 과의 예산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과에서 있는 돈 가지고 마음대로 용역을 하

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내용과 그다음에 정말로 시급한 건지, 지금 꼭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00 교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16번, 오늘은 순서가 상당히 많이 뒤바뀌어 있는데요.

제가 불러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육담당관에서 하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용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호 안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및 정책 추진방안 연구**

제16호 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위 원 장(O O O 위원)

사업의 필요성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16호 안건설명**

제16호 안건설명자

어린이복합시설 먼저 좀 개념이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영유아, 아동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놀이, 체험, 학습의 기회를 부여해서 정서함양, 지능개발, 신체발달과 같은 어린이종합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하는 그런 복합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이런 것들이 유사한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요, 이런 시설들이 제한된 주제로 접근하는 데 반해서 종합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 정리, 정체성도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광진구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상상나라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6,000㎡ 되는데 이것이 운영 중이고, 현재 은평 사회혁신파크 내에, 이거는 규모가 작습니다.

3,5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본격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복합 문화공간의 건립방향이랄지 종합적인 입지검토가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보육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활발하고,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 요청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께서 특정 지역에 건립하기 전에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건립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정하는 용역을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게 됐고요.

참고로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질문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제16호 안전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은 먼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 O O 위원

생애주기 전체로 봤을 때 청소년, 또 노인, 장애인 등등에 대한 관련 시설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런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기본적으로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 물론 용역을 추진하실 계획이지만 어떤 선도적 사례라든지, 아까 우리나라에 그거 말고 혹시 다른 데 살펴 보신 게 있나요?

제16호 안전설명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놀이터, 작은 규모의 놀이시설 같은 것들은 많이 있죠.

있고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좀 큰 규모의 종합적인 시설은 저희가 아직 파악하기로는 상상나라가 유일하고 그래서 저희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국에 다른 도시에서 오는 걸로 봐서는, 그게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하고, 유일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은평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사회혁신파크 내에 소규모

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격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는 2,500㎡의 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마 처음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외국에는 가장 비근한 사례로 키즈뮤즈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육체활동 중심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유사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 O O 위원

혹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라든지, 또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대응해야 될 여러 가지 역량들을 정말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모델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6호 안전설명자

조금 추상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용역과제인 것 같습니다.

O O O 위원

이상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O O O 위원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해외사례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해외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규모, 예를 들면 사이즈, 그러니까 넓이 규모, 그러니까 지역규모하고 예들의 숫자가, 사용하는 사용자의 숫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그러니까 몇 명에다가 규모, 어느 정도의 규모에 몇 명 대비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선행사례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자체예산으로 이것을 설립한다고 하시더라도, 더 많이 드는 거는 이 자체에서, 실제로는 만들 때보다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하는 그 비용이 아마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6호 안건설명자

첫 번째, 해외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자료수집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파악하기로는 독일의 케틀러호프탈지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 예전에 시카고에 키즈뮤즈엄을 갔을 때, 그 규모가 현재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 상상나라가,

○○○ 위원

그게 몇 개나 있었죠, 시카고예요, 키즈뮤즈엄이요?

제16호 안건설명자

하나 있습니다, 키즈뮤즈엄이요.

○○○ 위원

그럼 서울시에는 이미 하나 있는 것 아닌가요?

제16호 안건설명자

상상나라가 하나 있죠.

○○○ 위원

예.

제16호 안건설명자

그게 13년도에 연면적은 한 19,000㎡가 되거든요.

그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본격적인 시설로는 처음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해외사례를 저희가 조금 더 용역하면서 구체적인 면적이랄지, 인원 대비 면적 같은 것들은 연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저희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서도 그 용역을 말씀하신 것이, 어차피 건립은 어떤 구에서 부지까지 제공을 하겠다는 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립 후에 운영비가 말씀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용역에서 입지 검토할 때도 부지확보 여부랄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를 시킬 계획입

니다.

○○○ 위원

타당성 검토에는 앞으로 계속 유지할 유지비용, 앞으로 계속 어쨌든 예산이 들어갈 테니까,

제16호 안건설명자

예, 개략적으로 들어가죠.

○○○ 위원

그에 대한 대안도 같이 조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제16호 안건설명자

예, 개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결과로 서울시, 예를 들면 권역별로 한 개소씩을 정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요청을 할 건데, 그 안에는,

○○○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보는 것은, 타당성검토라는 것은 그 계획을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면, 그것이 막연한 어느 정도로 수입이 될 것이다, 어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될 것이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기간 내에 이 예산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16호 안건설명자

저희가 제목은 타당성으로 넣었는데요.

사실 조금 이게 진짜 구체적인 건축설계 들어가기 직전까지 타당성은 아니고요.

처음 검토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개념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조금 저희가 욕심을 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시범 1개소에 대한 개략적인 건축계획까지, 그리고 개략적인 타당성까지를 욕심을 냈는데, 조금 보다 세밀한 말씀하신 타당성은 아마 그 이후에 기술용역이랄지 그 이후 단계에서 조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〇〇〇 위원

제가, 예.

위 원 장(〇〇〇 위원)

예, 하십시오.

〇〇〇 위원

이게 어차피 저희 상임위 거라서, 일단은 그 어린이복합문화시설 필요  
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다음에 여름에 너무 더울  
때, 그다음에 추울 때, 꽃가루 날릴 때, 사실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시기가 너무너무 많아져요, 요즘 환경 이상이 많다 보  
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역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들은 다 체육관이 있으니까 체육관에서 애들이 뛰어 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기후가 안 좋을 때  
실내에서 뛰어 놀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이런 거 이렇게 복합적으로 물론  
하면 좋기는 좋겠죠.

하지만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을 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 위주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터공간, 그런 실내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  
문에, 요즘 같은 때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일단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16호 안건설명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은평이 상당히 혁신파크 안에 있기 때문에 규모  
가 작거든요.

부지면적이 확보된 게 2,500 내외인데,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할  
곳은 조금 부지가 넓은 곳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〇〇〇 위원

은평이,

제16호 안건설명자

은평에 혁신파크가,

〇〇〇 위원

최초로 무슨 뭐를 한 건가요, 그럼요?

제16호 안건설명자

은평 혁신파크 안에요, 작은 규모로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복합문화공  
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〇〇〇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제16호 안건설명자

용역, 기술용역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요, 본격적인 시설이 아니고 많은 공간에 많  
은 기능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할 곳은 말씀하신 대로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전문가들  
얘기로는 아이들의 어떤 놀이나 체육활동을 통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대근육을 쓰는 그런 체육활동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이랄지,  
그러한 형태를 것들을 많이 넣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〇〇〇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이번에 추경할 때  
보니까 너무 특정 구에 일단은 편중되어 있어요.

만날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면 몇몇 구만 항상 먼저 혜택을 받더라고  
요, 수혜를 받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16호 안건설명자

용역 안에 그걸 주문을 했는데 조금 주변에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기  
존에 유사한 시설들과의 차별화,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 원 장(〇〇〇 위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16호 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O O O 위원)

16번과 관련해서 먼저 주심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저희끼리 잠깐 토론을 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 O O 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상에 비해서 어린이들 혹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좀 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서 나오는 거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러한 형태로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O O O 위원

저는 반대인데요.

상황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예산이 좀 남으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 있으면 좋다는 생각은 하지만, 과연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사업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들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돈이 들어가요.

만들 때는 그냥 내키는 대로 만들 수 있지만, 만들고 나면 그 뒤처리라 굉장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하게, 여기 물론 타당성연구라고 한다면 타당성조사하는 거는 오케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이라는 게, 일단 이 사업이라는 게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그거를 끊지를 못해요.

결국 계속 나가게 돼요, 사업은요.

규모도 커지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조심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시점에서 해야 될까.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의견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거나 청소년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시설은 있지만, 애들을 위한 시설은 대부분 사설시설들이 많거든요.

위 원 장(O O O 위원)

민간이 많죠,

O O O 위원

거기 들어가서 하루에 1, 2만 원씩 내고 놀게 하고 하는 것들인데, 공공에서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시설이 아직은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연구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의견 있으십니까?

O O O 위원

저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욕심내서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환경적으로 미세먼지도 많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환경적으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내놀이터, 실내체육관, 그리고 실내에서 땀굴면서 책을 누워서도 보고, 뛰면서도 보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로운 공

간들은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똑바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거 같 수 상임위 차원에서 토론회 한번,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해서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제16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의견,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요.

첫 회의라, 첫 번째라 길게 가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복합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주심위원님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또 어떤 위원님은 ‘이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이 관련 과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들지, 이 구조를 어떻게 할지, 뭐가 들어갈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게 아직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타당성을 이게 하는 게 맞느냐,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간이 절대적으로 민간시설 중심으로 어린이공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위원님은 현재 다양한 공간보다는 실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날씨가 정말로 좋지 않을 때 어린이가 뛰어 놀 수 있는 공공의 공간들을 마련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토론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거수를 통해서 본 안건이 적정, 부적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그러면 본 안건은 적정으로 판단, 심의되었습니다.

O O O 위원

심의결과는 공통의 의견입니까?

위 원 장(O O O 위원)

아닙니다.

심의결과는 자신의 의견을 쓰셔도 됩니다.

1번,

간 사(시정연구팀장)

다음 안건 시작하기 전에 소개 안 해드린,

위 원 장(O O O 위원)

소개 안 하신 분들이요?

예.

간 사(시정연구팀장)

먼저 이번에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이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O O O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O O O 위원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간 사(시정연구팀장)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O O O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숙명여자대학교 O O O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고려대학교 O O O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O O O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 일동 박수! )

위 원 장(O O O 위원)

다 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좀 공정하고 ping 장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명 위에 보면 예를 들면 2018년 수시포괄비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



전검토서에 보시면요.

그다음에 자체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그 과나 그 국의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 용역을 하겠다.'라고 제시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예산의 경우에는 정말로, 현재 정말로 시의적절한지, 내용이 적절한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과제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이미 타당성이 확보가 됐고, 그런데 작년에 결정이 2년짜리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도 계속과제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장기지속과제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1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제1호 안건설명**

제1호 안건설명자

조직담당관 자치경찰팀장 000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술용역안건 올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는요, 자치경찰 시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 시행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포함되었었으며, 지난 6월 김·경수사권 조정합의를 발표를 하면서 서울, 세종, 제주에서 2019년 중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안건으로 상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서 대통령제가 됐습니다.

2019년 중에 우리 시랑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물론 기존에도 학술연구가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치경찰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

있고요.

'실무적으로 정말 그러면 자치경찰 사무로 넘어오게 되는 사무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인력과 어느 정도 예산, 어느 정도 재정이 넘어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 연구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이번에 실시함으로써, 2019년 중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안건을 올렸습니다.

**제1호 안건심의**

위원장(000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는 필요한 연구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만 행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완벽하게 뒷받침되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

제1호 안건설명자

이번에 그 자치경찰제 관련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이번 9월에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때 법안을 제정을 해서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000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굉장히 실무적이고 실행가능한 정도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실제 법령화가, 법제화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축적으로 그 논의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왕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구하시는 그 결과물이 나중에 가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1호 안건설명자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전체 경찰 사무를 경찰청에서 438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떤 사무들이 넘어올지에 대해서 공표가 되지 않았지만, 정부 자체적으로는 안이 확정이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넘어오는 안이 대통령보고를 별도로 드린, 자치경찰에 관한 안은 대통령보고 별도로 한 이후에 저희한테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표된 안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시행을 준비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혹시라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신속적으로 해가지고 고려해서,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맞춰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 위원

그런데 읽다 보니까 딱 마지막 한 가지 질문,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이 완전히 법제화된 거는 아니죠?

제1호 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 위원

그런데 그 문제하고 이런 연구하려는 이 대상, 사무의 어떤 이런 범위라든지 이런 거하고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1호 안건설명자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자치경찰제 관계는 그 사무의 내용에 있어서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검·경수사권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경찰 권력이 너무 강해진다. 경찰이 너무 강력해지고 권한이 오히려 국민의 권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권력도 누군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으로써 경찰 권력 분산하자는 게 문제인 정부의 큰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 438개 사무 자체랑 검·경수사권 조정은 크게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기 때문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께서서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적정하다 판단하시는 거죠?

○○○ 위원

예.

위 원 장(○○○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한 가지만,

위 원 장(○○○ 위원)

예.

○○○ 위원

연구기간이 11월부터 그다음에 1월까지라고 하는데요.

예산을 떨어야 되는 기간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바쁜 때에 이렇게 돼서, 한 1개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늘린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

예.

○○○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주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몰라서 그런 쟁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또 저희 입장에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자면 이 연구과정을 활용해서 토론회나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간은 조금 신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자치경찰제 시행이 언제인가요, 구체적으로요?

○○○ 위원

이렇게, 6월21일 청와대 발표는 '19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에 대해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고요.

다만, '자치경찰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이 될 예정이고,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과 여러 가지 맞물려서 논의가 돼야 되는 과정인데, 자치경찰 부분은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저희도 자치경찰제 시행하려면, 조직과 인사와 예산 부분이 수반돼야 해서, 이 부분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진행한 후에 내년에 예를 들자면 추경이 됐든 이런 부분 반영해서, 빨라야 하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빨라야 하반기요?

○○○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원)

용역기간은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위원

예.

○○○ 위원

예.

이 연구는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요.

사실은 자치경찰제 시행이 그동안에 굉장히 숙원이었는데, 당연히 실무적인, 사실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경찰에 대해서요.

○○○ 위원

예.

○○○ 위원

학술적인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예를 들자면 여성안심, 어린이안심 이런 치안서비스들이 주로 이양이 될 텐데요.

서울시에 있는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자치경찰과 연결해서 할 건지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로 놀면 안 됩니다.

○○○ 위원

재산 문제도 좀 흥미롭습니다.

○○○ 위원

예?

○○○ 위원

경찰 재산을 이거를 넘겨줄 건가, 서울 요지예요.

그런 거요.

○○○ 위원

현재까지는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치경찰을 시행해서, 서울시가 그 서비스를 하고 싶은 의지가 더 크고요.

재산이라든지 인사권 욕심까지 내면 아예 안 될, 김대중 정부 때 무산된 것처럼 안 될 수도 있어서, 실행을 욕심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되어 봐야 알겠지만, 저는 어차피 이게 제대로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험결과를 어느 정도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올 상반기에 서울시 모델을 만들어서 완전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을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모델일 뿐이고, 그거에 대한 실행계획을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1호 안건결론**

위원장(○○○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적정으로 판단되었고요.

기간은 좀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그러한 보완의견으로 적정으로 심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은 자르지 않고요.

분위기를 잘 보셔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시간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8시에 끝나야 되는 스케줄입니다.

**제2호 안건**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위 원 장(O O O 위원)

앉으십시오.

제2호 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 스마트앵커팀장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앉으세요.

필요성 중심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내용은 다 보고 왔으니까 필요하다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 발표해 주십시오.

**제2호 안건설명**

제2호 안건설명자

예.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스마트앵커 사업은, 도심제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2022년까지 20개소에 스마트앵커를 조성하려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개소에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올해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올해 말부터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구필요성을 설명 드리면, 스마트앵커가 입주하게 된 입주업체 선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입주하는 소공인들이 협동화 사업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스마트앵커가 조기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찾는데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사업특성 및 공정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공간배치나 구성 등을 연구를 통해서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앵커가 ICT 기반의 기술들과 제조공정과 연계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된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를 통해서 기획, 제조, 유통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연구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연구내용은 업종,

위 원 장(O O O 위원)

연내용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2호 안건설명자

예, 이상입니다.

**제2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O O O 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제2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서울연구원이 기존에 계획단계에서 어느 정도 관련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다.’라는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공정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

악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2호 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결국은 효율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공정이 어떻게 어느 기업에 어떤 제품과 맞물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전문성이 서울연구원이 있나요?

제2호 안건설명자

기본에 세부공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제조업 분야가 다 다양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는 서울산업진흥원 쪽에서도 같이 세부공정에 대해서는 하지만, 전체적인 기본적인 스마트앵커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의 큰 틀에서의 연구를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하고, 각 공정별 세부사업이 진행될 때 거기에 맞는 세부사업모델에 대한 연구나 공정연구, 공간배치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공간배치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제2호 안건설명자

예, 기본적인 공간배치를 같이, 기본적인 틀은 연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연구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동시에 계획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계획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설계가 같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그림이 제대로 나온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제2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만약에 동시에 그게 수행이 되는 것인지, 별개로 순차적으로 따로 수행이 되는 것인지 여쭙보는 거예요.

제2호 안건설명자

1차년도 사업이 세 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화, 그다음에 인쇄, 봉제 부분 사업이 올해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11월부터 건물 건립을 위한 설계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본 학술용역이 통과해서 진행되게 된다면,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 위원

저,

위 원 장(○○○ 위원)

예.

○○○ 위원

봉제는 어디죠?

제2호 안건설명자

중랑구에서,

○○○ 위원

중랑구죠?

제2호 안건설명자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스마트앵커.

이게 수제화, 인쇄, 주얼리, 봉제 이게 전부 다 다르잖아요.

제2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산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앵커에서 요구되는 사항들도 다 각자 다르잖아요.

제2호 안건설명자

예.

OOO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냥 말뿐인 용역이 아니라,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제2호 안전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남으셨나요?

OOO 위원

아니, 됐습니다.

OOO 위원

스마트앵커가 입주시설인가요, 아니면 장비 대여공간인가요, 뭔가요?

제2호 안전설명자

입주시설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장비 대여할 수 있는 공동장비실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별도로 그냥 단편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 연계해서 그 안에서 소공인들이 입주하고, 그다음에 공동 장비도 사용하고 같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원화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OO 위원

아파트형 임대공장처럼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2호 안전설명자

예, 개별적으로 임대만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2호 안전설명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O O O 위원)

토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심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고 토의하겠습니다.

OOO 위원

제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제2호 안전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보완의견에 적어주셔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제3호 안전**

**홍릉 일대 강소특구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위 원 장(O O O 위원)

신성장산업과에서 오셨고요.

제3호 안전설명자

안녕하세요.

위 원 장(O O O 위원)

앉으세요.

본 용역을 필요성, 시급성으로 중심으로,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3호 안전설명**

제3호 안전설명자

저희가 홍릉 쪽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업입주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네트워크 프

로그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정부 차원의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제도를 찾았었는데 요.

최근에 올해 5월8일 날 정부의 과기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의 소규모 어떤 단지 내에 R&D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성과물들을 사업화하기 용이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지역을 도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추진하는 바이오클러스터 운영사업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어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이게 어떤 특구지정이 되게 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투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 지정, 과기부에 지정신청을 해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제3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O O O 위원

일단 흥릉 일대를 아마 ‘거의 선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타당성조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계획까지를 전체를 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3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타당성조사에서 ‘이미 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요.

제3호 안건설명자

그거는 아니고요.

신청 고시에 보면, 이런 육성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하는,

O O O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기 위한 내용을 용역을 통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제3호 안건설명자

만약에 최우선은 어떤 지정 타당성조사에 목적이 있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지정 여건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정 신청에 필요한 요건들을 같이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O O O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지정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3호 안건설명자

저희가 이거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과기부 쪽에 찾아가서 면담을 했었고요.

그동안 어떤 특구와 단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실 수도권 이내 정도로 거의 지정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규모가 작은 어떤 단지이고요.

그다음에 과기부 측에서도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서울 동북권에 있기 때문에, 동북권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사실은 다른 것보다 지정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죠?

제3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보고서 다 만들어봤는데 지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시에서 이거를 가지고 뭐하겠다.’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서 그거를 여쭙본 건데요.

제3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O O O 위원

사실상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용역 아닌가요?

제3호 안건설명자

예,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지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제3호 안건설명자

정부에서 R&D 자금을 핵심기관, 그 안에 보면 핵심기관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R&D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서는 과기부에서 한 800억, 전체 연구개발특구에 800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얼마나 내려올지는 일단 능력에, 저희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서 자금이 내려오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R&D 자금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이라든지 부담금 감면이라든지, 또한 일자리창출 효과에서도 어떤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데도 참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담당관

지정이 되면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제3호 안건설명자

시비가 좀, 국비 R&D가 내려오게 되면 시비가 한 20% 정도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O O O 위원

저기,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도 좀 상반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3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저는 정작 궁금한 게 서울시 자체 동북지역발전계획이 있을 텐데,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낙후했으니까요.

제3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는 이게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 다 지방에서 하고 있고 세 개가 또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시내에서 균형발전에서 봤을 때요.

제3호 안건설명자

저희가 홍릉 쪽에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요, 그러니까 동북권의 어떤 핵심거점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지가 않고, 홍릉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권 파급효과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클러스터가 활성화되면, 나머지 어떤 동북권 쪽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 조금 더 홍릉이 활성화되고 동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O O 위원

그럼 그 말씀은 이거 말고는 다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북지역에 대한.

제3호 안건설명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홍릉 쪽 부분만 해서 거기까지는,



위 원 장(O O O 위원)

신성장사업과에서 관심 있는 거는 이거고요.  
도시계획이나 교통이나 다른 여러 분에서의 관련 계획은 따로 있죠.  
생활권계획 그래가지고요.

O O O 위원

위원님 질문은 ‘예산담당관에서 판단한 연구개발특구 선정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의견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강소연구개발특구 이렇게 해갖고, 용역명이 강소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제도가 새로 생긴 건가요?

제3호 안전설명자

5월8일 날 시행령개정을 통해서요, 첫 도입이 됐습니다.

O O O 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3호 안전설명자

예, 기존에 연구개발특구는 수도권이남 쪽으로, 이 밑에 쪽으로 지정이 거의 됐고요.  
강소는 조그마한 작은 지역에 핵심 어떤 R&D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이고요.  
그래서 과기부 소관부처에 방문을 했었고요.  
과기부에서 가능성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3호 안전설명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O O O 위원)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의견을 잠깐 정리해 주십시오.

O O O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강소특구라는 게 저도 특구, 강소특구에 대해서 정

확하게 몰라서 특구로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있는지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 결국은 제안서 작성하는데 돈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액수가 너무 커요, 예산이요.

돈이 너무 크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저는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산담당관에서는 연구개발특구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강소라, 특구가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O O O 위원

정확하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산담당관A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성과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과기부는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을 보다 보니까 수도권에는 거의 지정이 안 되고, 지방에만 지정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서울에 지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존 특구 중에서도 세 군데나 이미 바이오메디컬 분야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메디컬 분야라는 거를 하면서 지방이 아니고 서울이라는 곳에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을 과기부가 받아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부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자하고, 중앙부처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  
자기들은 자기네 자체예산가지고 한번, 그런데 주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과업제안서 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위원

그런데,

위 원 장(○○○ 위원)

예.

○○○ 위원

검색을 강소특구 검색해 봐도 두세 군데 한다고 하는데, 서울은 언급 자체가 안 되어있는데요.

나와 있는 기사 면에서도 경기도, 충청도, 경남, 전남 이렇게 있더라고요.

서울이 아무래도,

위 원 장(○○○ 위원)

안 주겠죠.

○○○ 위원

예, 안 줄,

위 원 장(○○○ 위원)

안 주겠죠.

저희 생각은 그런데요.

○○○ 위원

이 부분은 아까 동북권, 특히 강남·북 균형발전해서 동북권 쪽에 창동 상계도 있지만, 홍릉 쪽에 바이오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고, 농촌경제연구원이 저쪽 나주인가로 가면서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의료기업, 바이오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걸 생각하고 한다면 저는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분이고, 아직 우리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주변에 원주단지도 있고 또 인천 쪽에서도 한참 추진했었잖아요.

그런 지역과의 차별성이 있나요, 여기가요?

○○○ 위원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는,

기술심사담당관

홍릉 쪽에는요, 현재 서울시에서 의료바이오 관련된 산업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보다는 현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에 많은 너무 돈을 들인 것 같아서, ‘조금 돈을 내려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냐.’ 생각이 듭니다.

위 원 장(○○○ 위원)

예산은 깎으면 되죠.

○○○ 위원

예산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 제3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

예산은 깎으면 되고, ‘시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마중물 돈을 조금 우리가 한번 줄 거냐, 말 거냐.’ 사실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가 중앙정부에서 줄지 안 줄지는 사실은 가 봐야 아는 거니까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토론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제4호 안건**

**2019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

제4호 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제4호 안건설명자

일자리정책과 고용훈련팀장 OOO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본 용역의 필요,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으니깐요, 필요성 중심으로, 타  
당성, 필요성, 시급성 이런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4호 안건설명**

제4호 안건설명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권역별로 네 개의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전부다 다르다 보니까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의 조  
직, 인력운영 이런 게 다 제각각입니다.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교육원별로 중복되는 부분  
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기술교육원별로 학과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  
이 있습니다.

중부기술교육원에서 미용학과가 있으면 남부기술교육원도 똑같은 학과  
가 있고, 북부기술교육원에 자동차고 학과가 있으면 남부기술공개원에도  
똑같은 자동차학과가 있습니다.

이런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과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강사 운영의 탄력적 운영이 필  
요한데요.

정규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바로 해고하고 새로운 학

과신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의 필요성,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비 표준훈련비를 고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표준훈련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연구용  
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4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O O O 위원

말씀하신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단지, 이게 연구설계상에 있어가지고 기간을 왜 10개월, 이게 좀 길지  
않나.

제4호 안건설명자

연구용역기간이 길다는,

O O O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4호 안건설명자

말씀드렸다시피 단위사업으로 연구과제를 한 세 개, 많으면 네 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별로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편성  
을 한 것입니다.

O O O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거를, 이게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  
려면, 여기 보면 표현화도 하고 중복 하는 것 없애지만 또 지역특성에  
맞게 하겠다.

제4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굉장히 야심차게 이렇게 하시는데 연구진이 세 명이서 어떻게 그거를 다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4호 안건설명자

연구진 세 명을 제출하기는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편성을 해서 한 거고, 만약에 심의를 할 때는 충분히 그 연구인력이 확보된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구기간은 약간 신축적으로 조정도 가능하시다고,

제4호 안건설명자

예, 약간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저희 생각은 10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거의 1년 하시는 거네요?

제4호 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위 원 장(○○○ 위원)

예, 또 질문하십시오.

○○○ 위원

혹시 시간 끝기 아닙니까?  
시간 끝기요.

제4호 안건설명자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이신지요?

○○○ 위원

길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남부기술교육원 개편방안 연구가 끝났어요.

제4호 안건설명자

맞습니다, 예.

○○○ 위원

그런 내용들이 아마 주가 될 것 같고, 학과중복이나 이런 부분들, 교수

운영의 탄력성 부족,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4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그리고 예전에 수기도 하고 철척도 해서 뭐가 문제인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4호 안건설명자

그런데,

○○○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탁법인과의 문제, 그다음에 직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신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할 필요가 추가적으로 있는지 여쭙보는 거예요.

제4호 안건설명자

예, 처음에 말씀하셨던 남부기술교육원 개편방안 연구용역도 저희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전에 중점을 둔, 남부기술교육원은 군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계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한 거고요.

○○○ 위원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도 돼요?  
이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까?

제4호 안건설명자

맞습니다.

○○○ 위원

복지재단 관련된 사항들 아니었어요?

제4호 안건설명자

재단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을 펼쳐내기 위해서 서울시계로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 위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제4호 안건설명자

예, '서울시계 내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문제점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보면 민간위탁, 직영, 폐지 세 개를 가지고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운영위원회든 아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 아닌가요?

제4호 안전설명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직영도 있고 폐지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 직영하는 부분, 아니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각 현행 처럼 네 개의 기술교육원을 네 개의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아니면 한 개의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통일성 있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 위원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위원)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 위원

기술교육원이라는 데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제4호 안전설명자

연간 한 7,000명 정도 직업훈련생을 선발을 해서요, 서울시민 15세 이상 7,000명 정도 선발해서 무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고요.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까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교육내용의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4호 안전설명자

예.

위 원 장(○○○ 위원)

그런데 그것도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작은 도시도 아닌데, 강동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배우려고 예를 들면 강서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사실은 있다.' 그 지역에 필요한 교육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뭔가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지, 이게 예를 들면 서울시에 네 개가 있는 건가요?

제4호 안전설명자

맞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네 개가 떨어져있을 텐데, 그것들이 서로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4호 안전설명자

저도 그런 면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합리적인 중복성은 가능하다, 합리적인 중복성이 있다면 괜찮은데요.

그냥 무턱대고 중복되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4호 안전설명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 위원)

주심위원님 의견 듣고 토론하겠습니다.

○○○ 위원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의혹이, 이게 과연 연구를 뭘 하겠다는

건가.

○○○ 위원

그러니까요.

위 원 장(○○○ 위원)

이게 바뀌셔도 됩니다.

○○○ 위원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연구비가 세 사람이 1년간 안 하면 이 연구비 규모가 사실 나오지를 않는 구조라서, 사실 자세히 보면요.

그런데 그냥 소프트웨어, 커리큘럼 주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진짜 혈세 1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요.

○○○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간 한 10년 이상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시장속의도 하고 용역도 하고 자체계획도 수립했으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육 받아야 될 분야는 진화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인력들은 강사로서 계속 남아있고, 혁신이 필요한 사항은 맞고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끌기로 ‘이거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어떤 계속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갈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용역비를 낮추고 기간을 줄여서 압박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행감할 때 또 그 결과물 가지고 논의하고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10월까지 가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고 또 한 해 넘길 수 있거든요.

위 원 장(○○○ 위원)

다른 데 가시고요.

○○○ 위원

저도 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이요.

기간이 일단 너무 길고, 액수를 줄여서 짧게 하면 좋겠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 위원

고민해야 될 분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문제점은 다 나와야 있는데, 사실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도 굳이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아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간과 돈을 줄여서 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제4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

그러면 이거는 두 개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필요 하느냐.’ 하나, 그다음에 기간과 시간을 줄이는 것 하나 이렇게 거수를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이, 그다음에 내용이 이 제목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필요하신 내용들은 보완의견에 다 적어주시면, 그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용역으로서, 용역내용을 많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이거는 이 제목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더라도 이거는 잘라서 많이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잠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 예산을 줄이려는 거가,

위 원 장(○○○ 위원)

그렇죠, 걱정이면서요.

○○○ 위원

부적정이면 어떻게,

위 원 장(○○○ 위원)

그 뒤는 끝이요.

○○○ 위원

아예 그냥,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그 뒤는 끝이죠.  
그럼 그다음은 안 합니다.

O O O 위원

아예 그냥 삭감하든가 살리되 나누어서 하자는 거죠.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예, 그래서 본 용역은 일단은 필요한, 적정으로 심의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기간, 내용은 조금 바뀌었지만 기간과 용역비를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예, 그래서 기간, 내용이 많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기간과 용역비를 줄이는데, 그거는 O O O 위원에 저희가 위임을 해서,

O O O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상당히 많이 줄이는 것으로요.  
상당히인가요?

O O O 위원

그렇죠.  
한 6개월은 줄이는,

위 원 장(O O O 위원)

6개월 정도로요?

O O O 위원

상반기 중에 끝날 수 있도록이요.

위 원 장(O O O 위원)

상반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O O O 위원

저기 문서에 나중에 제가 이거를 부적정으로 한 것,

위 원 장(O O O 위원)

관계없습니다.

O O O 위원

이 문서는 그냥 우리 심의를 위한 문서이고요.

O O O 위원

그렇습니까?

O O O 위원

거기 필기해 두셨던,

위 원 장(O O O 위원)

여기에 적어주시는 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것 감사받는 것 아니십니까.

O O O 위원

이거하고 여기하고 달라가지고요.

위 원 장(O O O 위원)

관계없으십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O O O 위원

죄송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5번 하겠습니다.

### 제5호 안건

근로자복지관 역할 및 기능 확대방안 연구 용역

위 원 장(O O O 위원)

노동정책담당관이시죠?

제5호 안건설명자A

노동정책담당관 근무하는 000입니다.

위 원 장(0 0 0 위원)

본 내용은 저희가 다 봤고요.

필요성, 그다음에 시급성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5호 안건설명**

제5호 안건설명자A

근로자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확대방안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서울시 근로자복지관과 강북 근로자복지관, 이 두 개의 근로자복지관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설립으로부터 26년이 경과한 시점이라서, 변화된 노동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발전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현 근로자복지관의 시설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시민생활 속에서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관 발전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장요청사항이 있어 학술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위탁운영 중인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의 시설이 일단 협소하고 노후되어, 적절한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역할 및 기능 확대방안에 대하여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변화된 노동환경과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한 근로자복지관의 기능 확대와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시민생활 속에서 노동존중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관의 최적규모, 입지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제5호 안건심의**

위 원 장(0 0 0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0 0 0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계획이라든지, 대충 새로운 만약에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규모, 이런 게 주초점인지요?

제5호 안건설명자A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현재로서는 논의상당, 그리고 법률지원, 그리고 노동교육 이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동환경이라는 게 21세기 변화되었다고 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더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역할에 맞추어서 공간계획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능 확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0 0 0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영역 이런 거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주된 목적이신가요?

제5호 안건설명자A

그렇습니다.

0 0 0 위원

지금까지 파악된 선행연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렇게 축적된 분석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제5호 안건설명자A

조사결과 그런 거는 아직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 원 장(0 0 0 위원)

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필요한 기능이나 역할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아예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업무를 하시면서요.

제5호 안건설명자A

사업계획서에 적은 대로, 연구내용에 어떤 노동콘텐츠를 받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요.



예컨대 노동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노동역사교육체험관 이런 것들도 같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 위원

한 가지 마지막, 주타겟 그룹이 누구세요?

제5호 안건설명자A

그 부분은 앞으로 이 연구용역을 위해서,

○○○ 위원

현재요.

현재 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5호 안건설명자A

주로 전 노동자를 일단은 다, 근로자복지관이 노동자를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호 안건설명자B

제가 팀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가지고 있는 것 보면 기능이 조금 노동자들에 한정되어 있는, 노동단체 소속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법률상담이나 이런 기능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과 함께, 아까 담당이 설명했듯이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서관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시민들과 같이 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용역을 수행하고자 신청했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이요?

○○○ 위원

기존에 있던 근로자복지관을 이전하기 위한 용역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5호 안건설명자B

예, 그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 위원

내년 3월 준공예정인 거 그거를 이전한다고요?

제5호 안건설명자B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예,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한 층을요.

○○○ 위원

그러니까 예정인 게 내년 3월 준공인가요?

제5호 안건설명자B

내년, 예, 연기가 돼서 5월까지요.

○○○ 위원

그 건물에 있는 거를 이전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시작한다고요?

제5호 안건설명자B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 위원

그럼 왜 그렇게,

제5호 안건설명자B

지금 가지고 있는 근로자복지관이 조금 노후 되고 협소가 돼서, 협소화가 돼서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해서,

○○○ 위원

새로 완전히 신축하는 건가요?

제5호 안건설명자B

예.

○○○ 위원

현재 신축하고 있잖아요.

제5호 안건설명자B

신축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공사가 진행 중인, 내년 3월 달에 준공이라는 게,

위 원 장(○○○ 위원)

증축 리모델링 이거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5호 안건설명자B

예.

○○○ 위원

증축인가 봐요, 증축이요.

제5호 안건설명자B

증축이 대강당이 노동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협소해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외부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축을 대강당 하나 증축을 해주고, 지금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근로자복지관 모델형을 시장님 요청 사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O O O 위원

시민 속으로, 노동자회관이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5호 안건설명자B

그러니까 노동이 지금은 단체원이라든가 노동하는 소속원들만 많이 그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요.

그리고 노동단체가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런데 그런 쪽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에게 개방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시민들과 같이 합께요.

그런 쪽으로도 확대해 보려고,

O O O 위원

다른 교육원이나 다른 보육이나 다른 시설하고 특징이 없어서요, 차이 가요.

제5호 안건설명자B

교육원, 지금 있는 근로자복지관을 교육원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새로 신축한다고 그러면요.

그 신축한 곳에서는, 요즘에 자치구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복합시설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직업체험관 같은 경우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쭉 지켜보셨고 상황도 아실 거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고, 활용한 많은 분들 의 그 의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활용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노력을 조금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굳이 이거 돈을 써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걸요?

제5호 안건설명자B

지금 근로자복지관의 한계가 사무실을 많이, 노동단체 사무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솔직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O O O 위원

됐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5호 안건설명자A

고맙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O O O 위원)

주심위원님 의견 듣고 토론하겠습니다.

O O O 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꼼꼼히 읽었다고는 했는데, 제가 읽은 내용에서는 예산담당 관에서 지적했던 이런 현시설의 현대화라든지 증축 이런 내용은 없었고, 이거는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게 그 역할이 지금까지 없었다. 앞으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게 쭙 나오더니 뒤에 가서는 적장 신 그 공간, 새로운 공간을 하는 공간계획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컨선이 일단은 그런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짓기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연구 자체가 예를 들면 유사중복연구가 나중에 또 건물 지을 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걱정이어서, 그 정도를 '너무 이질적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이 자료를 보고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 그러니까 알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정보를 안 주셨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위 원 장(O O O 위원)

다 모르는 것 같아요.

O O O 위원

제가 볼 때 여기 보니까 또 따로 다르게 이해를 하셨고, 저는 저대로 이해를 했고 예산담당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성 이거를 다 떠나서 기본정보가 조금 부정확해가지고,

O O O 위원

이 분이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위 원 장(O O O 위원)

예, 맞아요.

본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요.

O O O 위원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하면 자칫,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다른 데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위 원 장(O O O 위원)

다른 도서관, 다른 유아원하고 똑같은,

O O O 위원

그런데 딱히 뭔가 포인트가 더 없어져서, 이거 역시 제가 죄송하지만,

위 원 장(O O O 위원)

아닙니다.

이거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실 일이 아니고요.

O O O 위원

이상하게 오늘 따라,

위 원 장(O O O 위원)

오늘 따라 축이,

O O O 위원

이상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아닙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O O O 위원

제가 잘못된 지기, 인상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적정이라고 써가지고요.

사실 제가 이거는 이 정도 내용이면 적정이라고 못,

위 원 장(O O O 위원)

부적정으로 판단하신다? 예.

O O O 위원

확인할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에서 근로자복지관 이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전이 맞습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공간이 증축 중에 있고 내년에 오픈이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여기 신축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를 기능을 죽인다고 하면 이전의 기능이, 이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강당 이런 쪽으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O O O 위원

프로포절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O O O 위원

짓기는 하고요.

짓기는 하는데,

O O O 위원

예, 새로운 건물 짓는 것,

O O O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어때요?

예산담당관A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을 기존에 근로자복지관은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공사 끝나고서 한 10년 정도 쓰고 나서, 새로 다른 데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용역을 하겠다든지, 만약에 이 증축공사 자체를 아예 안 하고서 아예 신축으로 해야 되니까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 이거를 한 16년, 17년 그때부터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인데,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곳에 제가 마곡인가 거기로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변동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위원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증축 중인 게 기능이 사라지는 거냐고요.

예산담당관A

그러니까 그 기능이 그렇게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여기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폐쇄를 하는 거예요?

○○○ 위원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다른 용도로 요청해서 사용하고, 새로운 데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도 현재 리모델링이 있는 게 6층이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현재 5층 건물 위예다가 하나 한 층 올려가지고 거기 강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있고요,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경로, 그냥 유아원이나 어떤 어린이시설이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공간에 노동복지관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 건물 용도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현재 저희가 서울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구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5층 건물을 다 쓰고 있는데, ‘그 한 건물, 하나를 더 건물을 하나 지어서, 지어주는 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제5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

그리고 담당자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거를, 저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담당자가 설명한 것 가지고, 저희는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의시간을 끝내고요.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검토서를 보시면, 네 개가 다 적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발표를 하지 않고 질문을 바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내용은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빨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은 법정절차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빨리, 그다음에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떤 내용을 더 해라. 뭘 추가해야 된다.’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시죠.

6번 들어오세요.

### 제6호 안건

#### 람사르습지 한강밤섬 기본관리

위 원 장(○○○ 위원)

한강사업본부이시죠? 예.

제6호 안건설명자A

한강사업본부 환경과장 ○○○ 입니다.

위 원 장(○○○ 위원)

예.

이거는 법정절차이행사업이죠?

제6호 안전설명자A

예.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데요.

제6호 안전설명자A

예.

위 원 장(O O O 위원)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주심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더 해라.’ 이런 추가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질문을 해주실 겁니다.

제6호 안전설명자A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주심위원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6호 안전심의**

O O O 위원

람사르 밤섬 기본관리계획에 크게 두 가지가 육화 부분이랑 가시박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게 두 꼭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시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리고 육화 부분에 대해서 환경조사하는 란에는 지질 같은 거나 이런 거 들어가지만, 강우나 이런 거에 대한 용역, 습지조사 같은 경우에는 ‘강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 구성부터 습지규모까지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제6호 안전설명자A

당초에 이것은 기본,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제가 마련을 했구요.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전문가회의를 해서, 다시 용역과제를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가의견을 들어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해서, 저희가 그 계획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하시면 되죠?

제6호 안전설명자A

예.

O O O 위원

그리고 연구기간이 3월부터 9까지인데, 조사하는 항목 중에 식물만 하면 습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초종들이면 9월이면 거의 끝나니까요.

그런데 조류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많이 나타나는데, 조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제6호 안전설명자A

그거는 저희가 동물, 식물성 조사는 현재 분기 1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O O O 위원

조류는요?

제6호 안전설명자A

조류도 지금 하고 있죠?

제6호 안전설명자B

조류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연생태과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O O O 위원

예.

제6호 안전설명자B

그런데 정밀조사가 과거에 되어 있고 올해도 진행, 내년에도 진행을 하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O O O 위원

그러면 자료를 거기에 있는 자료를 쓰신다는 얘기죠?

제6호 안전설명자A

그렇죠.

제6호 안전설명자B

예.

○○○ 위원

추가조사는 하지 않지요?

제6호 안전설명자A

예.

제6호 안전설명자B

예.

○○○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 제6호 안전결론

위 원 장(○○○ 위원)

용역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 원 장(○○○ 위원)

그 전과, 많이 해왔으니까요.

토론을 받지 않고 바로 거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전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은 작년에 신청해서 보완하라고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긴급하게 긴급포괄비로 잡혀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제7호 안전

#### 한강 수변공간 마포지구 관광활성화

제7호 안전설명자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에 000입니다.

### 제7호 안전심의

위 원 장(○○○ 위원)

앉으세요.

이거는 재심하는 거라서요.

제가 주심위원이라 제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제7호 안전설명자

설명은 제가,

위 원 장(○○○ 위원)

설명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이게 재심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똑같은 내용을 그냥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더 한다.’ 아니면 ‘뺐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7호 안전설명자

기본적으로 저번 때 말씀하신 주 내용이 과업내용이 포괄적이고, 다른 데 중복되고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강 하구에 있는 마포에 자체적인 관광자원도 중요하고, 수변에서 저희들이 많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있지만, 수변 중에 하구 중심으로 해서 큰 자원이나 이런 거 연계해서는 사실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유사중복이라고 하신 부분도 사실상 하구가 좀 이쪽 지역은 사실 검토한 적이 거의 없고, 두 번째 다른 것도 다 목적이 있거나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검토를 했고, 저희도 이번에는 마포 중심으로 하구하고 검토를 하고요.

지난번에하고 차이점은 크게 전략을 세울 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나 관광객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관광콘텐츠뿐만 아니라, 시설들에 대해서도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수변 쪽하고 마포지역재생지역 연결할 수 있는 시설에 대

해서 검토를 해서 방향을 확실히 수변과 지역, 그리고 하구하구의 발전, 나중에는 하구가 남북한, 이거는 너무 나간 얘기이긴 한데, 하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관광자원 연결까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요구인데, 마포지구중심으로 활성화계획을 하면 결국은 그 북쪽의 마포지구, 그러니까 수변 말고 마포지구의 여러 가지 자원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이미 되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수변으로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에 대한 연구내용이 조금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7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O O O 위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질문하십시오.

O O O 위원

마포지구 관광활성화 용역인데 유동인구 특성, 관광수요, 보육시설 등은 이 내용을 처음 봤으니까, 이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마포구청 가면 다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제7호 안건설명자

저희도 마포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시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마포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거는,

O O O 위원

그리고 여기 관광활성화잖아요.

제7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관광공사잖아요.

제7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이거 한국관광공사에서 본인들이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7호 안건설명자

관광공사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O O O 위원

12개월이나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7호 안건설명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관광자원 자체는 마포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연계하는 거는 사실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연결로나 산책로 그런 문제도 있고, 수변하구의 또 접근성 자체도 사실 검토나 시설에 대한 개선이 더 필요합니다.

마포만 문제가 아니고, 한강하고 도심하구의 연결성 문제는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마포구에 특징적으로 더 그 제반과 한강수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많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O O O 위원

마포가 더 특별하다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다른 데 비해서요?

제7호 안건설명자

다른 데 말씀드린데 관광,

O O O 위원

한강 주변에서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7호 안건설명자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한강자원화에 대한,

○○○ 위원

자전거 타고 쪽 달리잖아요, 요즘 자전거 잘돼가지고요.

제7호 안건설명자

그거는 한강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

그러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다 따로따로 개발할 건가요, 관광을요?

제7호 안건설명자

따로따로 개발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 큰 틀에 대해서 유사중복이라고 언급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방향만 구역 구역해서, 저희가 7개 구역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방향을 하고 있고요.

○○○ 위원

한강 전체적으로 용역을, 관광에 대해서 용역한 것 혹시 없나요?

제7호 안건설명자

언급, 자연보호 및 관광자원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정부와 합동으로 했는데, 그 용역의 주된 목적이랄까 방향성은, 일단은 여의도나 이촌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됐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 대해서,

○○○ 위원

사실 우리가 한강을 유람선을 타고 쪽 지나가도 볼 것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7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그게 군데군데 생각날 때마다 여기 한번하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하고 저기 한번하고 하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와요.

제7호 안건설명자

전체적으로도,

○○○ 위원

테마가 없어요, 전체적인 테마가요.

제7호 안건설명자

전체적으로 사실 관광자원화 및 자연성 회복 이런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고,

○○○ 위원

한강에 대한 테마를 만들어서, 쪽 타고 갔을 때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게 하든지 뭔가 그런 큰 그림으로 해야지, 자꾸 국지적으로 아래만 쳐다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7호 안건설명자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

큰 그림 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동안요?

제7호 안건설명자

큰 그림이 저희가 한강 자체가 보시면,

○○○ 위원

큰 그림 한 것 내용 있으면 제 연구시설로 일단 자료 갖다 주세요.

제7호 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한국관광공사에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가?

그렇지, 제한경쟁을 해도 되나요?

제7호 안건설명자

관광공사 자체도 처음, 그러니까 처음에 제출했을 때도 저희가 그,

위 원 장(○○○ 위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제7호 안건설명자

가능한,

위 원 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7호 안전설명자

가능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이지요?

제7호 안전설명자

예, 검토는 많이 했고요.

위 원 장(O O O 위원)

그쪽에서 많이 했다?

오케이.

제7호 안전설명자

많이 했고 여기에서 전문성이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O O O 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돼서 저희가 ‘다시 정리해 와라.’ 해가지고 가져온 내용이고요.

제가, 저도 지난번에 있었고요.

지난번에 비해서는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제가 논의필요라고 적었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관광공사 수의계약 하겠다고 그래서 ‘왜 이거 한국관광공사하고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시에도 많은 인력이 있을 텐데.’라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필요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산, 기술, 조직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도 ‘내용으로서는 적정하고,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경쟁방식으로 충분히 계약방법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저도 적정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또 의견 주시죠.

O O O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비나 연구기관이 적정한 건가요?

O O O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걱정 부분.

O O O 위원

지난번에도 회의 때도 ‘2억5,000이 좀 과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해외출장비 이런 부분도 좀 과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딱 어떤 용역비산출기초에 의해서 이 예산이 형성된 것은 아니고, 작년 예결위 과정에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 부분도 있고, 과업기간도 조절을 하고 예산도 조절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O O O 위원

한강공원을 가보면 강 남쪽에는 사실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마포 쪽에는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포나 합정 쪽, 그다음에 경의철도 주변에 현재 공원화 되어 있어서 그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걸어가면 한강공원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O O O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마포로 국한된다면, 이 기간과 이 사업비는 저는 과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요.

O O O 위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사업비 줄이고 기간 줄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으로, 자유경쟁인가요, 제한경쟁인가요?

O O O 위원

제한경쟁.

O O O 위원

제한경쟁.

**제7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제한경쟁인가요?

제한경쟁으로 해서, 그런 전제하에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그래서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8번 기후대기과입니다.

**제8호 안건**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

제8호 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 OOO 주무관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이 일요일 날,

위 원 장(O O O 위원)

앉으세요.

앉아서요.

제8호 안건설명자

서울의 날, 일요일 날 서울 차 없는 날 행사 때문에 담당주무관이 설명  
드리러 왔습니다.

양해말씀 구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성과 시급성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은 저희가 봤습니다.

**제8호 안건설명**

제8호 안건설명자

우리 시는, 이클레이 세계총회 개최를 계기로 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2020년까지 05년도 배출량 대비 25%를 감축하기로  
전 세계에 선포하고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역점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서울의 약속을 수  
립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가지고 온실가스 실 배  
출량인 인벤토리를 매년 작성해가지고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15년부터는 온실가스  
실 배출량 자체가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사업 추진실적과 인벤토리 실 배출량과의 차이에 따른 원  
인도 분석해 보고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시민과 약속한 감축  
목표 이행과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  
다.

**제8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O O O 위원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항은 굉장히 연구목표하고 부합하고 있거  
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이 과업지시사항은 굉장히 뭐라고 해  
야 될까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 잘 계산하는데 조금 더 포  
커스가 맞춰져있는 것 같아서, ‘과업지시사항이 조금 더 고쳐져야지 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과거 감축정책성파로 평당 온실가스배출량  
하고 실제 인벤토리상의 배출실적에서 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8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업지시사항에는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제8호 안건설명자

그래가지고 과업지시서에서는 안으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가지고, 각각의 감축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와 감축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차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감축사업 효과들을 재해석하고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과업내역서를 잡았습니다.

다만, 이 내용 자체가 어렵고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과업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건데, 제안서 평가할 때 이 과업에 대한 접근방법이라든지, 해석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뒀가지고 과업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업은, 그러니까 과제의 제목은 정합성 확보인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또다시 그냥 시나리오 분석해서 결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합성 확보는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논란이 지속되는 사업이 될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사항 굉장히 명확하게 잘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발주하실 때요.

제8호 안건설명자

알겠습니다.

○○○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 위원

가스배출 대상, 측정 대상은 뭐가 되죠?

이게 그 뭐야, 국토부에서도 건물 대상으로 가스배출량을 산출하고 있지 않아요,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제8호 안건설명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목표 자체가 서울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양이라든지 폐기물로 인한 배출량,

○○○ 위원

폐기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8호 안건설명자

그러니까 행정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연료원과 폐기물 분야라든지, 또 타 흡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쭙보는 것은, 국토물에서 폐기물도 따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따로따로요.

종합해가지고 아마 같이 모아서 테이터를 산출할 텐데, 국토부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죠.

제8호 안건설명자

거기는,

○○○ 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토부는요.

제8호 안건설명자

전국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 사업장으로 기반, 특정 사업장 기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건물도 하고 있고요, 건축물도 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죠?

제8호 안건설명자

온실가스 에너지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측정을, 모든 사업소에서의 측정된 기반으로 온실가스 산출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목표는, 시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 기반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 위원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죠?

결과가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산정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산정하는 것은 다르게 매기고 값이 다르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매겨지나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8호 안전설명자

범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범위가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건축물 대상, 폐기물 대상 다 따로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요.

뭐가 다른 건가요?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시에서 굳이, 전국적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왜 해야 되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8호 안전설명자

서울시 자체적으로,

○○○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응답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위원)

그것은 저희끼리 이따가요.

○○○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8호 안전설명자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선포하고 조례에도 담았습니다.

○○○ 위원

국토부에서 자료 안 주나요, 서울시 자료요?

다 있으니까 어차피 서울시 것만 받으면 되잖아요.

제8호 안전설명자

그거는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계획 안에서의 세부사업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에너지 줄이기라든지, 태양광 보급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시 바운더리 내에서의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양입니다.

○○○ 위원

제 말은 전체가 U가 있으니까 A라는 집합이잖아요, 서울은요.

A집합의 것 값을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부분집합이잖아요.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죠.

○○○ 위원

이런, 어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하느냐.’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표상에 어떤 추세가 있고 감축되기도 하고 했을 텐데, 왜 이 시점에서 서울시가 조금 더 말씀하신,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더 정확한, 서울 실정에 맞는 더 정확한 통계, 측정 이게 왜 필요하냐.

○○○ 위원

그거를 해서 뭐를 하려는 거냐는 거죠.

○○○ 위원

이미 있는 데이터 받아오면 되는데 왜 필요한 거죠?

서울시가 따로 해야 되는 이유,

○○○ 위원

과거에 너무 감축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까, 혹시 전, 다른 시장님 때요?

제8호 안전설명자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 부분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도 다 포함하고 있고 수송 부분도 포함하고 있고, 심지어 건물, 수송 이외에 사용자들은 에너지양들을 다 포괄한 게 서울시 인벤토리이고요.

그 인벤토리 기반해서 총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선언을 하고 달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 위원

중복은 아닌가요?

제8호 안전설명자

예, 중복은 아닙니다.  
서울시 인벤토리 자체가,

○○○ 위원

저는 중복처럼 보이는데요.

제8호 안전설명자

범위가 더 큼니다.

○○○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이런 게 없었나요?  
온실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한 것들이,

제8호 안전설명자

예, 이때까지는,

○○○ 위원

전혀 없었나요?

제8호 안전설명자

이때까지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들을  
모니터링은 쪽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 바  
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두 개의 결과 값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들을 보정  
하고 해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 위원

그런데 감축을 위해서 또 용역을 하셨잖아요.

제8호 안전설명자

예.

○○○ 위원

그렇죠?

그럼 감축을 위해서 제도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뭘 용역을 또 하는지요?

제8호 안전설명자

감축을 한 결과물을 보는 게 온실가스 인벤토리로서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데, 그 지표 값과 우리 감축사업 실적과의 괴리가 있으니  
이것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 위원

숫자가 많은 적든 간에 어차피 온실가스는 문제가 되고, 그 부분에서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잖  
아요, 누구나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게 뭐냐는 거죠.

최종적인 것.

자꾸 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제8호 안전설명자

온실가스,

○○○ 위원

이 연구가 다 끝났을 때 최종적인 게 무엇을 목표로 이거를 하냐는 거  
죠.

제8호 안전설명자

예를 들면 우리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있어서는, 감축 상호간에 효과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 위원

서울시에서 온실가스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요?

어떤 것 때문에,

제8호 안전설명자

건물 부분에서 제일 많이 배출됩니다.

○○○ 위원

건물 부분에 그 에어컨?

○○○ 위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

제8호 안전설명자

건물 부분의 에너지 사용이 제일,

○○○ 위원

그러니까요.

제8호 안건설명자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그럼 그거를 그냥 정책방안을 내시면 되잖아요.

○○○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감축하기 위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어떤 온실가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세우는 거가 중요하지, 또 이것을 연구해서 ‘이게 수치가 더 올라갔으니 어떻게 하자.’ 그게 뭔지,

제8호 안건설명자

말씀드린 기본적인 종합계획 서울의 약속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생산효율화 부분별로 대책이 다 담겨있는데, 이런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실제 온실가스 양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이것들을,

○○○ 위원

그러니까 온실가스 양이 100이든 50이든 간에 문제가 되잖아요.

제8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 되지,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고 5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 위원

오차가 왜 중요하냐는 거죠.

○○○ 위원

그 오차를 어디에다 발표해서 어디에다, 학술지에다 내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요.

위원장(○○○ 위원)

주심위원님 잠깐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요.

○○○ 위원

굉장히,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에너지나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성과를 잡아야 되는데, 성과를 계산해서 내놓으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확성, 이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에 나온 수치랑 서울시가 앞으로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큼 떨어지겠다.’라고 나왔을 때 비판을 받을 때 이것을 좀 디펜스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교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위원

그럼 과거의 것도 보정이 가능한 거예요, 과거 데이터요?

○○○ 위원

과거에 나온 것과 실적과, 서울시가 과거에 했던 것과 실제 실적 국가 통계로 나오는 것과 비교를 해서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 파악해서,

○○○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잘못하면 통계청2가 될까 봐 그러는데요.

○○○ 위원

그렇죠, 통계청이요.

○○○ 위원

이게 타임시리즈가 짝 있는데,

○○○ 위원

그렇죠.

○○○ 위원

과거 데이터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그 절차에서 수치가 나오냐고요.

○○○ 위원

예.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들 맞추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으요.

그래야지 미래를, ‘우리가 돈을 그만큼 들었을 때 2020년에는 우리 이만큼 줄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말하고, 조금 더 디펜스를 정확히 할 수 있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8호 안건설명자

막상 20년이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폭 자체가 크지가 않으니까, 감축계획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신규 사업도 더 발굴을 하는, 감축계획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말하면 전문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들은 것으로는 제목이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예요.

온실가스정책이 막 있었고, 그 각각의 정책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감소가 됐는데 그게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거 효과를, 그거를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정책은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어떤 정책은 굉장히 해봐야 별의미가 없는 것,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의 이 실효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맞나요?

제8호 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다만, 제목을 이렇게 잡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하나의 대책인 거고, 이 대책을 수립함에 따라서,

위 원 장(O O O 위원)

배출량이,

제8호 안건설명자

성과 모니터링을 실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니까 제목을 이렇게,

위 원 장(O O O 위원)

두 개가 적합성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 이게 말이 잘 안 맞아요.

하여튼 그거는 제목과 관련된 거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이런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문제가 발생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실제 수치간에 이런 이질적인 문제, 이거를 어떻게 보정해가는데 대한 접근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거나, 아시는 게 있는지요? 아직,

제8호 안건설명자

사례를 과제에다가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O O O 위원

아니 처음부터 국토부 자료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발표를 했으면 서울시가 비난을 안 받을 거 아니예요, 국토부 자료이니까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그거를 해가지고 비난을 받으세요?

제8호 안건설명자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실 15년 이전부터, 2017년인가 그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O O O 위원

국토부에서 그거를 한 게 제 기억에 2007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미 했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국토부에서요.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8호 안건설명자

다만, 말씀드려도,

위 원 장(O O O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8호 안건설명자

이게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전 세계적으로 공포한 거고, 또 시민과 함께 수립한 약속이다 보니까, 저희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한 성과 차이가 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 위원

목표가 얼마까지 온 거예요?

제8호 안전설명자

예?

○○○ 위원

목표의 얼마까지 왔냐고요.

제8호 안전설명자

2005년 대비, 20년까지는 25% 감축입니다.

그래가지고 20년까지는 3,700만 톤 수준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4,500만 톤 수준이라가지고 8% 정도 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감축이 8%라서 그런다, 감축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제8호 안전설명자

예, 그 정도 수준으로 감축됐습니다.

위 원 장(○○○ 위원)

25% 가야 되는데 8% 감축됐다?

제8호 안전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2005년부터 해서 13년이면 기술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오히려 온실가스가 사실은 더 늘어나잖아요, 이전에 비해서요.

제8호 안전설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연구에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

됐습니다.

위 원 장(○○○ 위원)

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주심위원님 의견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의견을 정리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분야에서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배출계수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걸로 서울시가 산정해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늘 그렇게 산정했던 결과가 많이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2020년 목표를 체크하려고 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위 원 장(○○○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국토부 자료를 쓰면 되는데, 왜 서울시만 따로 자료를 모으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나요?

○○○ 위원

사실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출계수를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적용해서 계산을 해도, 문제는 서울시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계산하는 거랑 그거를 계산한 거랑 국가 단위로 전체 계산한 그 값이랑 이 값을 서울시로 가져와서 계산한 거랑 차이가 나요.

○○○ 위원

원래 다 차이가 나요.

○○○ 위원

예.

○○○ 위원

같은 국토부 내에서도 자료가 차이가 나는데요.

○○○ 위원

예, 그렇죠.

○○○ 위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 장관님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뭐야, 정통부 쪽에 했을 때 자료를 PC가 몇 대인지를 조사를 시켰



는데 몇 가지, 몇 부서에다가 나누어서 시켰대요.  
자료가 다 달렸대요.  
그거는 어디를 해도 무슨 데이터를 해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불가능  
해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게, 이것을 보통 우리가 중복이라고 얘기  
하거든요.

○○○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비전문가라서, 저 선생님이 잘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원하는,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 정말 정확  
한, 서울시가 실제로 배출한 이런 배출량의 추세를 안다고 했을 때, 그  
러면 예를 들어 8%, 목표를 8% 달성한 건가요?

○○○ 위원

예.

○○○ 위원

25%를 해야 되는데 8%를 한 거잖아요.

○○○ 위원

예.

○○○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가 수단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건가요?

○○○ 위원

그거는 향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강화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함의밖에 지금은 못 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너무 2년밖에 안 남아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그럼 서울시가 향후에 정책을 내는데 조금 더 합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아까 예로 ‘건물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정확하게 하면 ‘건물 아니고 다른 쪽이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정책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

○○○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순위 자체를 건물이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거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합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보면 2005년도부터 해서 매년 한 1.5%씩 감축을 시켜서 와야 되는데  
요.

2010년 정도까지는 계속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 이후는 감소폭이 줄고  
있거든요.

작년하고는 0.1%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이 갭이 줄이고 줄이려고 해  
도 더 이상 줄여지지가 않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럼 어  
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게 맞느냐.’ 하는 것도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요, 서울시는 엄청난 큰 도시잖아요.

자동차 계속 늘어나고,

○○○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줄이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사람 계속 늘어나고 건물 계속 높아지고 계속 에어컨에다 뭐에다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시에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온실가스  
를 감축하기 위한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그런 조례상에 제재를 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 피부에 와 닿을 만큼요.

제도적으로 하는 거는 없었던 말이에요.

○○○ 위원

우리 시에서는 실제로 태양열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지열이라든가 천연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은 꾸준히 추진해 왔고요.

공공사업들이 먼저 그 부분들을 앞서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건물들 이중창 만들고 단열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로 해서도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에너지를 조금씩 더 쓰려고 하기 때문에,

○○○ 위원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용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거는 수치를 따지는 용역이죠.

○○○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여기에서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통계자료를 뽑다 보면, 우리 한계점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거를 끌고 가야 될지도 방향도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과업내용 마지막 쪽지에 보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마련도 있어 가지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언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주심선생님, 자연적 증가인자를 빼고 나면 서울시가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한 성과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자연적 증가 그거를 빼버리면요.

○○○ 위원

버리면 조금 더 명확하게 크게 보이겠죠.

○○○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이 잘된 것으로 나오겠네요.

○○○ 위원

예.

○○○ 위원

그게 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8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

그러면 거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다 감안하시고,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9번 안건입니다.

9번은 법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9호 안건**

**제5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40 수립용역**

위 원 장(○○○ 위원)

앉으십시오.

녹색에너지과에서 오셨고요?

제9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위원)

본 사업은 법절차 이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제9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됐고요.

제9호 안건설명자

예, 법정사업이라서요.

위 원 장(○○○ 위원)

오늘 그래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주심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9호 안건심의**

○○○ 위원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지역, 기본계획 작성을 하실 때 예산수준을 몰랐기 때문에 ‘예산이 서울시라서 이렇게 크구나.’라고 단지를 생각을 했는데, ○○○ 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사항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나요?

제9호 안건설명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집행단계, 계약심사를 거쳐서 실제 정산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액수가 나중에 나올 텐데요.

말 그대로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다만 그 계획 잡는 단계에서 저희가 검토한 건데, 사실 아시다시피 행정공무원들은 연구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소요액을 알 수가 없어서 작년, 지난번 4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담당했던 서울연구원 쪽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저희도 비교분석을 해봤는데요.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이 2차, 이번에 3차인데요.

2차 때부터 외부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닐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좀 더 활성화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를,

위 원 장(○○○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9호 안건설명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더 들어갔다는 거죠.

위 원 장(○○○ 위원)

예, 비용이 들어간 내용이 있다?

제9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난번에 추가가 되고요.

특정한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지난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제9호 안건설명자

그래서 조정해서,

위 원 장(○○○ 위원)

그렇게 될 예정이니까 그거는 예산과, 조직담당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죠?

제9호 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위원)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9호 안건설명자

예, 감사합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9호 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제9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

이것은 내용적으로 적정한 것 같고요.

법절차 이행이니까 해야 되고, 지금 이야기가 ‘지난번에는 1억3,500이었는데, 이번에 2억5,000으로 많이 늘었다, 그래서 다른 뭔가를 한다.’ 하셨으니까, 이거는 ○○○ 위원외, 그렇죠?

구체적인 자료가 다 소명이 되면 그 정도까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 예산과 같은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조건으로 거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번 하겠습니다.

서울시관계자

10번까지 하고 14번 하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10번 하고요?

서울시관계자

오시고 계셔서가지고요.

10분부터 하고요.

위 원 장(O O O 위원)

오고 계신다고요?

예, 그럼 10번 하고 14번 하겠습니다.

**제10호 안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제10호 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위 원 장(O O O 위원)

어서 오십시오.

제10호 안건설명자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O O O 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앉으십시오.

**제10호 안건설명**

제10호 안건설명자

신청한 용역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이라고 부르는 자원회

수시설 주변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3개년 단위로 묶어서 용역을,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오고 있는데요.

5단계가 올해까지 끝났고, 내년부터 3년 동안 6단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심의를 요청 드렸습니다.

**제10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5단계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이제 6단계요.

이거는 주민하고 약속한 매년 사업이죠?

제10호 안건설명자

그렇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다음에 이 금액도 매년 비슷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좀,

제10호 안건설명자

비슷한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2,000만 원 정도 증액이요.

주심위원님.

O O O 위원

예, 이거는 꾸준히 지속되는 과제라가지고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점은, 5단계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고, 그런데도 문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별로 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결과상으로 봤을 때 WHO 기준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계속 나오는데, '좋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론 파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꼭지가 3차 년도나 2차 년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이 주변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과업지시사항 인가요?

제10호 안전설명자

원래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2017년도 용역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3개 지역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주민들의 건강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교수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께서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항목을 더 추가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들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총액, 우리 재정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조금씩 조금씩 내용을 바꿔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대상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10호 안전설명자

주민들,

○○○ 위원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주민 수를 늘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제10호 안전설명자

주민들은 조금씩 늘어왔습니다.

어느 때는 또 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항목이 많아지면 항목을 늘리는 대신에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줄여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봤을 때 더 불안감을 느끼고, 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을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도 여기에서, 이 연구에서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과업지시사항을 여기에다 추가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쭙보고자 합니다.

제10호 안전설명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하는 것보다 더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사정상이요.

어제도 거주민들 중에 암에 걸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흔히 보이잖습니까.

그분들이 ‘암에 걸리는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같은 것을 여기에다 넣어서 해달라.’ 하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교수팀에서는 ‘그거는 용역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다르고 이 비용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민들께 말씀드려서 설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 위원

저기, 환경공해연구소에서 그 연구 활동 중에 이, 그러니까 18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제10호 안전설명자

예.

○○○ 위원

그런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다른 연구실적도 많은 연구소들 있잖아요.

제10호 안전설명자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의 신동천 교수라는 분들이 전체 PM을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맡게 된, 그 연구소와 그 교수님이 이거를 전체 총감독을 맡게 된 것은, 주민들이 그 당시에 ‘이분에게 맡겨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 맡게 됐고, 이거를 이쪽저쪽에서 하게 되면 용역의 특성상 같은 결과를 계속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 위원

어떤 특성이죠?

제10호 안전설명자

그러니까 하면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러 오염물질로 인한, 그 노출로 인해서 건강상으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는 거잖습니까.

○○○ 위원

예.

제10호 안건설명자

‘계속해야 적으로 봐야 되고, 또 검사하는 분들이 계속 해야 된다.’ 이런 특성이 있는 용역입니다.

○○○ 위원

18년 동안 연구원들은 바뀌었겠죠?

제10호 안건설명자

연구원들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체 지휘하는 전체 총PM, 그다음에 다이옥신 분야 검사를 하는 포항공대의 장 아무개 교수, 그다음에 환경상 영향을 하는 역시 연세대 공해연구소의 임 아무개 교수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보고하면서,

위 원 장(○○○ 위원)

예, 됐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궁금해서 여쭙았습니다.

위 원 장(○○○ 위원)

오케이.

○○○ 위원

주민들이 이분을 어떻게 알고 했어요?

○○○ 위원

18년 전에 아마 그분들하고,

위 원 장(○○○ 위원)

18년 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 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어서 아마 좋아하실, 잘 모르겠네요.

○○○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제10호 안건설명자

간단하게 말면 드리면 다이옥신이라는 물질 때문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다이옥신 그 당시에는 신체에,

○○○ 위원

옛날에는,

제10호 안건설명자

워낙 그게 위험하게 과장되게 알려져서, 지금은 다이옥신이 큰 이슈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8년 전에는 주민들께서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된 것입니다.

위 원 장(○○○ 위원)

예,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 위원

그런데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호흡기나 특별히 이 시설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암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제10호 안건설명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암이 몇 명이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조사해서 통계를 내지는 않았고, 한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변에, 우리는 25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은 2,000명 단위를 대상으로 이런 비슷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쪽 전국 국민의 평균보다 여기가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10호 안전설명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O O O 위원)

이거 쓰레기소각장 만들면서 주민들이 그 당시 18년 전에 ‘해 달라.’ 누가, 시에서 ‘이 사람 하자.’ 했더니 ‘안 된다.

O O O 위원

못 믿겠다.

위 원 장(O O O 위원)

A씨 우리는 꼭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O O O 위원

그런데 18년 동안 추적관찰 쪽 했더니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이거는 그냥 계속,

O O O 위원

해야 됩니까?

위 원 장(O O O 위원)

주민들이,

O O O 위원

안심시키려고요.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O O O 위원

18년 전에 시장이 누구였죠?

그때 시장이 누구였어요?

**제10호 안전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그래서 주심위원님이 적어주신 내용들을 보완의견에 잘 적어서 정리될

수 있게 하고요.

바로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전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넘어가서요, 1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제11호 안전설명자

장애인이요?

자원순환과인데요.

위 원 장(O O O 위원)

14번이라면서요?

14번입니다.

미안합니다.

원래 11번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14번입니다.

**제14호 안전**

**장애인복지관 직무분석 및 표준인력 지원방안 연구용역**

위 원 장(O O O 위원)

14번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저희가 내용은 다 봤고요.

필요성과 시급성 이거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14호 안전설명**

제14호 안전설명자A

장애인복지팀 O O O 주무관입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에 참석을 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복지관 패러다임이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운영, 그렇게 부합하는 운영기준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가 없이 인력의 증원·확대, 직급별 증원, 인건비 지원 기준 상향 등 현장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기준은 면적 단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능 위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모델을 개발하고자, 지원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상당해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14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O O O 위원

탈시설화, 특히 커뮤니티케어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의 패러다임변화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의 패러다임 변화는 최근 것,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장으로부터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10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고, 지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거의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서울시 예산 아닌가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한 것도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O O O 위원

그런데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산인데, 시민들의 예산인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짜서 하지, 이거를 기 수행했었고 또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또 이거를 부가적으로 또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담당주무관 OOO 주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는 예상 질문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2010년도에 실시했던 용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면적 단위의 어떤 방식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분리해서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개선을 할,

O O O 위원

10년 아니라 16년이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그러니까 10년도는 그랬고, 16년도에는 사실 말씀하신 ‘그런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지만, 현장이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사실 현장하고 마찰이 많아서, 용역의 방향이 발달장애인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만 일부 국한해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변화를 위한 어떤 용역은 하지 못했고, 일부 한 쪽지에 ‘발달장애인의 어떤 낮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정책적 제안에서 맞추었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중장기발전방안연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려고 하는 용역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청각장애인복지관, 종합장애인복지관 유형이 많은데, 그 유형을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용역의 방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한데, 그 시발점으로 시작한 거가 발달장애인복지관부터 서울복지재단이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발달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관을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O O O 위원

장애인복지관의 패러다임 변화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필요한 것이고,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해서, 또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발점으로 삼는 프로젝트 따로 있고, 또 내년도 해야 될 것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처음부터 이거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시발점으로 하는 것하고 내년도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뭔지가 그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그 차이점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16년도 용역이 현장과의 소통 없이, 쉽게 말해 현장에서는 용역개선을 통해서 복지관의 인력감축이라든가 예산을 삭감하는 식으로 오인해서 받아들였고, 사실 서울시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용역에 대한 취지를 잘 설명이 현장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걸로 인해서 16년도 용역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본연에 하려고 하던 어떤 용역의 방향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현장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갑자기 1월부터 그 용역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이 잘 수행될 수 있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50개소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꺼번에 50개소를 다 하기는 어려워서 올해는 발달장애인만 시범적으로 운영, 용역을 시범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O O O 위원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사업비가 좀 많지 않나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사업비요?

그 용역의 가장 주된 거가 전에는 장애인복지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0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의 전수조사와 그리고 이용자, 미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용역비가 조금 2,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무비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님이 너무 이렇게 나이스하게, 여기 내용에 보면 52개소 활용계획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계획 수립 및 반영 이게 목적이예요, 활용계획이요. 맞죠?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맞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중장기발전방안 연구라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재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재단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중장기발전방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냥 중장기발전계획만 세우나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아니요,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서울복지재단에서 용역을 착수해서 하고 있고요.

위 원 장(O O O 위원)

이거는 발달장애인만 하고 있다?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장애인복지관은 유형별,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한 가지 어떤 프레임으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런데 제목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부제가 발달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부제가 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이거는 발달장애인,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장애인복지관 중장기발전방안이고,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지금 하시려는 거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장애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수립을 마련한다?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수립 플러스 직무분석을 내년에 합니다.

사실 올해 하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은 직무분석은 안 들어갑니다.

O O O 위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관한 내용이 안 알려졌어요, 우리한테요. 2010년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중장기 발전연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존의 그 연구하고 중복여부를 하는 문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당연히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이거 서울,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자체예산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O O O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발달장애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 하고, 먼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장애유형별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먼저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맞습니다.

O O O 위원

이게 예산을 왜 이렇게 쓰는지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맞는데, 작년에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O O O 위원

얼마였어요, 2016년도 이거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O O O 위원

발달장애인 중장기발전 연구는 얼마였어요, 용역이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16년도 예산을,

위 원 장(O O O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O O O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1,900만 원입니다.

O O O 위원

1,900만 원이요?

위 원 장(O O O 위원)

이렇게 하려면 청각장애인 중장기계획도 한번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따로 하시고, 종합 따로따로 하셔야죠.

O O O 위원

지체장애인, 신장장애인, 시각장애인,

위 원 장(O O O 위원)

그거거든요, 체계가요. 그렇죠?

O O O 위원

왜 발달장애인만 먼저 따로 하는,

제14호 안건설명자B

발달장애인의, 사실 가장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에 급변하게 하고 있는 거가 발달장애 위주로 사실은 급변하고 있거든요.

O O O 위원

발달장애인 뇌성마비도 들어가나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아닙니다.

O O O 위원

아니잖아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고 있고, 타 시설,

○○○ 위원

그러니까 뇌성마비도 그렇고, 저는 저도 장애가족이 있어서 저기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굳이 발달장애인만 있냐고요.

시각장애인들 그다음에, 그럼 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돼요.

뇌성마비 더 심해요.

시각장애인들은 아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고, 어디에서 사는지 모르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장애도 너무 편중하면 안 돼요.

이, 정말,

위 원 장(○○○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위원

그래서 다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인력의 재배치가 포인트 아니에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 맞습니다.

○○○ 위원

그러니까,

○○○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 위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그러니까 실태조사 없이는 인력배치가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복지가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간다고요.

장애도 마찬가지로요.

발달장애 어머니들이 제일 목소리가 크시니까 그것만 막 얘기하시고,

그럼 다른,

○○○ 위원

그거까지는 저희가,

○○○ 위원

저는 그래요, 일단요.

○○○ 위원

예산도 너무 과다하고,

○○○ 위원

예.

○○○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연구의 순서가 안 맞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제14호 안건설명자B

사실,

○○○ 위원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14호 안건설명자B

예산이 과다하다는 부분은, 일부 조정을 해주시면 그거는 방안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 위원

그런데 커뮤니티케어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실,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 위원

맞아요.

○○○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 위원

유형이 너무 많은데, 정말 장애인들 케어 할 사람도 없고,

○○○ 위원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 원 장(○○○ 위원)

교수님이 계획서를 짜주시는 것으로,

○○○ 위원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예요.

그런데 그냥 예산을 대폭 줄여갖고 전반적인,

○○○ 위원

장애인에 대한 거는...

○○○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거 예산 엄청 많이 쓸 건데요.

○○○ 위원

예, 보건복지부도 많이 써요.

○○○ 위원

많이 써요.

○○○ 위원

예, 그런데 도대체 왜 서울시에서 따로 해야 되는지.

○○○ 위원

서울시에서 좀 특별한 모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를 예산을 한 반으로 더 줄여서 전반적인 직무표준화,

○○○ 위원

직문표준화도 저희가 이렇게,

○○○ 위원

그쪽으로만 그냥 하고, 전반적인 프레임을 짜고 그리고 나서 장애유형  
별로 간다든지, 원래 정석대로 리서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위원

조금 더 이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하고, 면밀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은 어떨까요?

○○○ 위원

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좀 논쟁적일 것 같거든요.

어느, 예를 들면 아까 보니까 장애종류별로 하게 도와주신 분, 직무가  
더 어렵고, 그러니까 면적당이 아니고 했을 때 받아들이시는,

○○○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탈시설화 문제가 있고, 장애인시설은  
요.

그리고 커뮤니티케어는 보건복지부에서 표방을 했으니까, 전국적인 변  
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에 맞추어서 시간을 두고 서울시는 하는 것도 방법이예요.

위 원 장(○○○ 위원)

의견을 주시죠.

○○○ 위원

예?

위 원 장(○○○ 위원)

정확하게 의견을 주시죠.

○○○ 위원

교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또 직무분석도 해야 되니까, 이거  
를 3분 1이나 이렇게 확 줄여서, 표준화작업 하는데요.

○○○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14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

그러면 직무분석 표준인력 지원, 표준인력 표준화하는 방향 쪽으로 내  
용을 줄이고요.

그쪽 중심으로 줄이고 예산은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  
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8번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

18번이요?

위 원 장(○○○ 위원)

18번은 올해 수시로 잡힌 포괄비이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으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발표는 듣지 않고 바로 질문하고 토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18호 안건**

**서울형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제18호 안건심의**

위 원 장(○○○ 위원)

가족담당관 오셨습니다.

제18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위원)

저희가 내용은 다 읽어봐서 잘 숙지를 했고요.

그래서 주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제18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위원)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18호 안건심의**

○○○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개발, 그리고 전달체계구축 이게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와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제18호 안건설명자

거기가 내용이 약간 러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장 기본적으로요, 실태조사가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 중인데, 지역별로 연령별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 특색이 틀린데, 기본 실태조사부터도 데이터가 정교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 위원

활용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18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그럼 활용을 한다면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제18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그런데 여기 이 프로포절에서는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제18호 안건설명자

조금 더 그런데요.

조금 저희가,

○○○ 위원

그러니까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가 러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해야 되겠다.' 조사가 굉장히 ...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내용이 없어요.

제18호 안건설명자

그 부분 조금 미스인데요.

조금 아주 세밀하게 하려고 시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두 차례나 했어요.

그래서 시교육청하고 관할 지역청하고 협의해서, 거의 전 지역에 학교를, 한 구당 두 개 이상 학교를 하고 전 학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제가 여러 프로포절 심사를 하는데 인쇄, 유입물비가 1,000만 원 넘어가는 것 처음 봤거든요.

유입물비가 1,000만 원씩이나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제18호 안건설명자

유인물비가 아마 저기, 설문조사를 정교하게 하고, 앱을 깔려고 하거든요, 앱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거를 아마 유인물 앱을 마련하는 서면으로 그 서포팅하는 그런 자료 같은 거를 아마 그렇게 다 포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〇〇〇 위원

예.

위 원 장(〇〇〇 위원)

또 질문 하시죠.

〇〇〇 위원

이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경 삭감했어요. 그렇죠? 예산이요.

제18호 안전설명자

예.

〇〇〇 위원

그 이유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이거 꼭 필요한 시설인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원래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18호 안전설명자

사실 이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〇〇〇 위원

예, 이거 선행해야지,

제18호 안전설명자

절차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맞습니다.

〇〇〇 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죠.

제18호 안전설명자

많이 늦었습니다.

〇〇〇 위원

네 군데를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25개소 또 오픈하겠다고 추경까지 한 것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였잖아요.

결국은 이런 선행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부터 하고 예산부터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제18호 안전설명자

조금 앞서간 감이 있습니다.

〇〇〇 위원

일단 저희가 충분히 지적할 때 많이 했었으니까 잘해 주십시오.

제18호 안전설명자

예, 고맙습니다.

위 원 장(〇〇〇 위원)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18호 안전설명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〇〇〇 위원

예.

위 원 장(〇〇〇 위원)

그럼요.

사실 이게 포괄비가,

〇〇〇 위원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나요?

〇〇〇 위원

시범사업을 벌써 4개월간 네 군데 하고 있고요.

올해 추경을 25개를 올렸더라고요.

다 삭감해 버렸어요.

아직 연구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〇〇〇 위원

유인물비가 1,000만 원이 다 A4용지인데요.

〇〇〇 위원

그러니까요.

위 원 장(O O O 위원)

그거는 나중에 예산에서 확인하시죠.

O O O 위원

유인물비 A4용지 1,000만 원 이거 처음 봐요.

O O O 위원

그리고 연구재료비도 다 용지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냥 계산 잡아놓은 거겠죠.

O O O 위원

그냥 안 맞으니까 넣은 것 같은데요.

O O O 위원

뭘 제대로 했는지 제가 다시 볼게요, 상임위에서요.

O O O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요.

**제18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8번, 이제 20번입니다.

**제20호 안건**

**서울시 난민 실태조사 및 활용가능 민간자원 연계방안 연구**

위 원 장(O O O 위원)

20번입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오셨고요.

저희가 이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답하시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0호 안건심의**

O O O 위원

연구기간을 2개월로 잡았습니까?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이게 난민실태조사하고 활용가능 민간자원 연계방안 이거를 2개월에 가능하시겠어요?

제20호 안건설명자

저희가 가장 최소로 해서요.

현재 특히 이슈가 됐던 게 그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곧 서울로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 특히 다른 외국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많은 틀이 있는데, 난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틀들이 없어서, 최소한의 매핑들 해가지고 민간자원들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수의계약 금액,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수의계약 기간도,

O O O 위원

연말로만 하려고요?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올해 해서 하는 게 내년에 바로 계획이 돼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O O O 위원

수의계약 이전까지 연세대학교에서 많이 해왔나요, 난민연구를요?

제20호 안건설명자

그러니까 그 사실 난민과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은데, 그쪽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연합을,

위 원 장(O O O 위원)

있는 것 같으면 안 되고 그분이 했었어야죠.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죠?

제20호 안건설명자

그러니까 일부 예전에 그런 작업을 하시긴 하셨어요.  
하셨는데,

위 원 장(O O O 위원)

연세대학교에서요?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연세대 어느 학과에서 했나요?

제20호 안건설명자

문화인류학과요.

O O O 위원

문화인류학과요.

난민 문제는 좀, 난민은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까지 인류 학과에서 많이 해왔으니까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올 말까지 꼭 끝을 내야 되는 건가요?

제20호 안건설명자

일단 이거를 끝을 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예산이 투자돼서 내년도에 이거를 가지고, 세부적인 게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많아진다고 하면, 지금은 민간자원들을 연계해서 가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반 해외이주민들의 관한 톨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톨에 난민들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또 난민들만의 특유한 특성이 있어서 그분들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NGO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생태 어떤 거지를 연구를 해서 그것들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매치될지를 보고,

O O O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난민 문제는 온 나라마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2개월 동안 그냥 이렇게 해갖고 방향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20호 안건설명자

그래서 중장기라고 써놓은 게 그런 연계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일단

가지고 최소한의 것만 일단 가져가겠다는 게 저희 생각인 거고요.  
또 시장님도,

위 원 장(O O O 위원)

사실은 기간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두 달이면 사실 한 달 반, 한 달, 연구는 한 달, 그렇죠?

이럴 것 같아서,

제20호 안건설명자

12월 말까지 어쨌든 최대한 가서,

O O O 위원

보통 그렇게 해보면 두 달짜리 수시면,

위 원 장(O O O 위원)

이미 다 되어 있고,

O O O 위원

이게 두 달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위 원 장(O O O 위원)

두 달에 가능하시다는 거죠?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 원 장(O O O 위원)

세 달 하면 안 돼요?

제20호 안건설명자

두 달 안에 해서 12월 말에 끝나버려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O O O 위원

난민 인프라가 뭐,

제20호 안건설명자

난민을 수용할 수,

O O O 위원

난민 인프라요.

제20호 안건설명자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게 있는지, 관련된, 법률 관련된 지원 단체는 어디가 있는지, 또 의료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과 또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있는지, 특성이 또 우리 보통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호 안건설명자

고맙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O O O 위원

지금은 이번에는 시간도 급하고 액수도 적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지만, 다음에 할 때 커질 때는 오픈해서,

제20호 안건설명자

예, 그때는 당연히 오픈해서 가고 또 많은 의견도 수렴해서 갑니다.

O O O 위원

그런데 사실은,

O O O 위원

이번 연구는 예맨 난민 거기만 포커스를 두는 거죠?

제20호 안건설명자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들, 유학생들에 대한 거는 있었지만, 난민은 사실 3,700명 정도가 서울에, 그러니까 신청자 포함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O O O 위원

그들에 대한,

제20호 안건설명자

매핑이 없었던 거죠, 사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해보겠다는 겁니다.

O O O 위원

그런데 진짜 2개월이면, 그것까지 다 한다면,

O O O 위원

2개월은 실태조사랑 민간자원 연계를 2개월까지 한다는 게,

제20호 안건설명자

실태조사 부분은 기본적으로,

O O O 위원

해놓은 게 있는,

제20호 안건설명자

자료들이 있어요.

법무부나 이런 데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느 포지션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포 정도를 가지고 가고요.

O O O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태조사도 분포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자원도, 사실은 그거는 공무원분들 현업에, 교수들보다, 학교에 있는 교수들보다 현업에 있는 분들이 더 잘 파악하고 그냥 현업의 한 분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업무가 아닌가요, 이런 거는요?

제20호 안건설명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른 분야에 대한 것들은 말씀대로 저희도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난민은 사실 처음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의 특수성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되면 저희도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O O O 위원

알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20호 안건설명자

고맙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 설명자 퇴장. )

주심위원님 의견 주세요.

○○○ 위원

이거는 진짜 2개월은 이걸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스타트업 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

저는요, 서울시 와서 웬 용역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눈이 돌아가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용역 주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 위원

자기 사실 업무를 용역으로 하죠.

○○○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돼서 일이 무슨, 너무 세분화 시켜가지고 해서, 사실 하는 일을 보면 다 중첩되는데 본인들이, 도대체 다 용역을 주면 본인들은 뭘 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위 원 장(○○○ 위원)

용역관리를 하죠.

○○○ 위원

예, 용역관리를, 저는 이거는 이 2,000만, 얼마야, 1,500만 원짜리 2개월 이거는 정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 위원

본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 위원

예, 본인의 업무예요.

○○○ 위원

그런데 의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 공식화는 안 돼도 의논은 하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 위원

이게요?

○○○ 위원

예.

○○○ 위원

아니요.

○○○ 위원

보니까 공표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 위원

그런데 난민 문제는 약간 좀 난민에 대한 사회과학적 그런 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 위원

의회에서 이거 하라는 얘기 없었는데요.

○○○ 위원

본인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용역으로 돌리는 거죠.

○○○ 위원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처음 접근해 보니까요.

### 제20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

그러면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위 원 장(○○○ 위원)

그다음에 11번입니다.

5분만 쉬었다할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5분만, 미안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 16시46분 정회. )

( 16시51분 속개. )

위 원 장(○○○ 위원)

그러면 11번 시작하시죠.

11번은 법절차 이행이고, 많은 분이 걱정을 하셔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제11호 안건**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위 원 장(O O O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오셨죠?

제11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세 번 들어오셨는데, 미안합니다.

제11호 안건설명자

아닙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이고요.

제11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이거는 법절차를 이행하는 거고, 작년에 확정돼서 올해하고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11호 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래서 발표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제11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주심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제11호 안건설명자

예.

**제11호 안건심의**

O O O 위원

제가 계획서랑은 잘 살펴봤는데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너무 약간 패러다임이, 프레임워크가 아직도 너무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

그래서 보면 폐기물을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만 하신 것 같아서,

제11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사전에 앞단에서 폐기물 감량을 위한 조금 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서 가지고, 이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11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과업내용에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1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이상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조직담당관에서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조직담당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위 원 장(O O O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호 안건설명자

고맙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제11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본 사업은 법절차 이행으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수립이 적정으로 심의돼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심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작년과 조금 다른 예산에 대해서 조직담당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번 하겠습니다.

**제19호 안건**

**제2글로벌센터 설치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

위 원 장(O O O 위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오셨습니다.

제19호 안건설명자A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앉으세요.

제19호 안건설명자A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외국인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000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저희가 내용은 다 파악을 했고요.

제19호 안건설명자A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시급한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19호 안건설명**

제19호 안건설명자A

예.

2008년도에 서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8만 명인데 비해서, 8년 사이인 18년도 올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53만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요, 약 세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162만 명의 한 32%를 차지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10년 전인 2008년도에 종로구 서린동에 글로벌센터가 이미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 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지만, 숫자적으로 증대한 외국인의 정책적 수요에 응대하기 위해서는 제2글로벌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여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 등이 있는데, 이 두 개소를 제외하고는 다 임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외국인다문화정책을 함에 있어서 제2글로벌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통폐합하고 외국인 지원정책을 포괄적이고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기본 용역, 타당성 용역과 가능하면 그 필요가 인정되면 거기에 기본구상안까지 포함해서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9호 안건심의**

위 원 장(O O O 위원)

감사합니다.

주심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O O O 위원

이미 센터가 있었는데, 이미 타당성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19호 안건설명자A

예, 08년도예요.

O O O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제2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타당성검토가

더 필요한 건가요?

제19호 안건설명자A

그때는 지금 설치된 곳이 도심에 위치한 25개 구 중에서 종로에 위치한 것에 대한 수요만 어떤 대응이 되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영등포, 구로, 금천 이쪽에 중국동포라든지 동대문구에 고려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한 대응은, 그때 10여 년 전에 글로벌센터 설치될 때는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고, 10년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팽창하고 있는 글로벌외국인정책에 대한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한 부분입니다.

○○○ 위원

필요가 있고 이미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검토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실태조사와 수요검증이네요, 결국은요.

아닌가요?

제19호 안건설명자A

잘, 제가 끝부분을,

○○○ 위원

예, 타당성검토라는 게, 여기 타당성검토라고 쓰여 있는 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조사이신 거잖아요, 실제로는요.

제19호 안건설명자A

예, 그 부분도 좀 포함이 되고요.

위 원 장(○○○ 위원)

이게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검토 그거 하시는 건가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예, 그거, 그러니까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사실 10년 전에 우후죽순격으로 필요시 때마다 센터들이 생겼는데, 사실 그 센터들이 가보면 인원이 두 명 정도밖에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센터가 종로에 있고, 서남권 글로벌이라고 서남권에 조그

마하게 있는데, 우리가 이 타당성조사 하는 거는 이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작은 센터들을 권역별로 크게 차라리 통폐합해서, 기능 중복되는 거를 통폐합하고 위치적으로 제2글로벌은 어느 곳에, 또 외국인 수요에 맞게 어느 곳에, 또 어떤 기능을, 지금 센터들이 너무 비슷한 기능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기능을 어떻게 담아갈까, 그리고 종로 글로벌센터가 유일한 거예요, 사실 원스톱서비스로는요.

그래서 그거와 제2글로벌로 해서 어디에 어떤 수요로 어떤 기능을 할지, 그리고 어떤 규모로 같지를 그런 총체적인 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 위원

예, 그럼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는, 그러니까 데이터는 어떤 거를 사용하세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요?

○○○ 위원

예.

만약에 하실 때는 연구기관에다가 일괄적으로 맡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연구기관에서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예.

○○○ 위원

이쪽에서 타당성검토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어떤 거를 제공해 주세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그냥 현황밖에 정도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실태조사까지 해서 조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 위원

실태조사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제19호 안건설명자B

관계기관들, 센터 설치된 종사자들도 만나고요.

실제로 그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도 만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직접 만나서 대면설문도 하고요.

대면조사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할 건데, 사실 어디에 얼마의 규모 그거는 간단한 용역이고요.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아갈지, 또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야 돼서, 사실 5,000만 원이면 큰 금액이라고 아니라고 생각는데요.

○○○ 위원

기존에 센터를 세우셨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적은 거잖아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그게 2008년도에 글로벌센터할 때 하나이고요.

나머지 센터들은 이름만 센터이지, 사실은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일본인이 많이 살면 일본인빌리지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세운 센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 조금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것들 중 통합해서 타당성이나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냥 실태를 그냥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지, 아무것도 데이터도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계획수립까지, 만약에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계획수립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는 연구기간하고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제19호 안건설명자A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작게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연구용역들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외국인 만족도조사라든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기존 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이번에 10여년 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 수가 증가한 거에 비해서 대표성을 가진 글로벌센터 하나, 종각에

있는 것 하나로만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 다시 조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 위원

동북권역이 어디를 구체적으로,

제19호 안건설명자B

동북권역은 동대문, 중구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동, 광진 이쪽이거든요.

서남권 쪽에는 사실,

○○○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19호 안건설명자B

예.

○○○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에 있고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종로에 하나 중심,

○○○ 위원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 쪽에 또 제2,

제19호 안건설명자B

예, 동대문이나 성동, 광진까지도,

○○○ 위원

서남권에는, 집중적으로 49%가 서남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예.

○○○ 위원

그래서 서남권에 세우는 것은 아니고,  
 제19호 안건설명자B  
 서남권 글로벌센터가 있습니다.  
 O O O 위원  
 있습니까?  
 제19호 안건설명자B  
 예.  
 O O O 위원  
 제1청사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제1청사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제19호 안건설명자A  
 그냥 서남권 글로벌센터라고 이름을 해서요.  
 O O O 위원  
 거기도 원스톱 되고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거기가,  
 제19호 안건설명자A  
 지금의 종각에 있는 글로벌센터라고 하는 거만큼의 기능은 안 되고, 아  
 니고요.  
 규모도 조금 작은,  
 O O O 위원  
 그래도 어지간히 가면 다 되고 그런 거죠?  
 제19호 안건설명자A  
 예, 그렇게,  
 O O O 위원  
 그럼 원스톱 그게 하나가 더 있는 거네요, 원스톱서비스되는 데가요.  
 제19호 안건설명자A  
 서남권을 커버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국동포들 많은 쪽에 일단  
 작은 규모로 하나 있습니다.  
 O O O 위원

몇 층이에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4층입니다.  
 O O O 위원  
 4층이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예, 지하에 강당 있고,  
 O O O 위원  
 지하에 강당, 지하 1층, 4층,  
 제19호 안건설명자B  
 그런데 그렇게 전체로 있을 때 굉장히 좁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 30평에서 50평 한 층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실 원스톱  
 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단순히 그냥 가서 상담하고 한국어교육만 받  
 는 게 아니라, 이 종로처럼 출입국이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  
 게 원스톱이 되는 게 종로밖에 없기는 하고, 서남권은 사실 조금 규모  
 가 작아서 한국어교육하고 상담 정도만 하는데 이름이,  
 O O O 위원  
 그럼 종로에 가면 항상 외국인이 라인이 어느, 길게 항상 줄 서있습니  
 까?  
 서비스,  
 제19호 안건설명자A  
 출입국, 다문화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리고 외국인비자라든지 그다음에 라이선스, 운전면허, 참고로 말씀드  
 리면 아까 종로에 있는 건물은 한 15층 건물에 연면적이 10,000㎡되고  
 요.  
 지금 말씀드린 서남권은 1,000㎡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O O O 위원  
 우리가 한 구에 한 300만 명 사는데 어떨 때는 줄 길게 서거든요, 필요  
 하면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맞아요.

맞는데요.

제19호 안건설명자A

예.

○○○ 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북권에 한 9만 명 사는데 몇 층으로 지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19호 안건설명자B

그런데 그거는 가안으로 잡은 것이고 사실 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저희가 어디 딱 고집한다기보다 어디가 필요한지, 그리고 중구난방 흩어져 있는 것을 사실은 다 통합해서 권역별로 하나씩 만드는 게 더 예산적으로도, 19개가 있지만 되게 작은 시설들이 임대되어 있거든요.

○○○ 위원

우리도 돌아다니네요.

행정서비스 받으려면 서울시내 다 돌아다니네요, 일반시민들도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그렇기도 한데,

○○○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그분, 아니 오히려 그분들,

○○○ 위원

서울에 굉장히 잘되어 있어가지고요, 지하철 타면 금방 가거든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한 번에 다 이루어질 필요 없다?

○○○ 위원

예, 뭐하려면 다 따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 위원

저도 여쭙보고, 한 가지, 죄송한데,

제19호 안건설명자B

예.

○○○ 위원

장소가요, 일단 서북권이 서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기존에요.

그러면 이미 있는 시설을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출입국사무소가 있잖아요, 목동에 있잖아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예.

○○○ 위원

그러면 훨씬 더 윈스톱이 더 효율적일 텐데, 왜 굳이 그거를 다른 데서 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윈스톱하기도 사실은 그분들이 돌아다니기도 좀 멀지 않아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그런데,

○○○ 위원

일단 출입국사무소가 있는 근처에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제19호 안건설명자B

그러니까 그분들이 업무가 사실 출입국은 상담을 오면서 하나 거치는 거지, 그분들이 대부분 원하는 게 자기는 그런 법률, 노무상담, 한국어 교육, 또 어떤 커뮤니티공간 이런 것도 굉장히 요청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밀집적으로 거주하는 게 동대문 쪽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차안으로 그쪽을 생각했던 거지만, 어쨌든 저희도 조금 더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아까 백테이터 얘기하셨는데 사실 여가재단에서 올해 10년간 향후 외국인지원시설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발전방안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백테이터도 다 드리면서 할 거기 때문에 5,000만 원 요청을 했고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효율적일지를 10년이 지났으니깐 한번 정도는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신청하게 되었거든요.

위 원 장(○○○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O O O 위원)

주심위원님 의견 듣고 토론하겠습니다.

O O O 위원

저는 반대로 검토가 부적정이라고 했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적정으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 원 장(O O O 위원)

예산을 좀 올려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O O O 위원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저 정도 규모면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내용상이요.

위 원 장(O O O 위원)

되나요?

O O O 위원

예.

O O O 위원

5,000만 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 원 장(O O O 위원)

저희가 하도 많이 깎아가지고 좀 올려줘야 돼요. 맞죠?

주심위원님은 여기에 쓰신 것하고 다르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O O O 위원

저는 하나 소수의견으로, 이거를 너무 예를 들면 다문화, 다양성 이런 거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경향, 이게 정책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40만 명 대상으로 예를 들면 1청사가 있고 2청사가 있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다 센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제2청사가 12층이라고 그랬는데 또 12층 규모로 이렇게 필요한지, 그러니까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치고는 너무 좀, 우리가 일반시민으로서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 원 장(O O O 위원)

그렇죠.

40몇 명이면 하나의 동인데, 그렇죠?

아니 하나의 구인데요.

구청도 하나 있으면 되는데요.

O O O 위원

종로의 요지에 이렇게 청사가 꽤 좋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 자주 그 주변을 가다 보면 거기 외국인들 줄 서있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거기가 너무 과밀하고 도저히 사용하지 못할 정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편의를 더 준다.’ 이런 개념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어떤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 ‘5,000만 원이고 5개월이니까 이 정도 용역 타당 한번 해봐라.’ 하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뒤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공간계획이나 기본설계도 이런 거를 다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청사를 짓기 위한 어떤 거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하는 것 같아요.

O O O 위원

예, 짓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O O O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정말 타당성검토, 저도 저 경우에도 그랬지만, 이미 그거는 ‘검토할 필요 없이 이거 필요하다.’ 이런 식의 너무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소수의견으로,

O O O 위원

그래서 부적정으로 했었는데,

O O O 위원

그런 거는 조금 있어요.

O O O 위원

실태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별로 외국인들이 진짜 줄 서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없나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지,

○○○ 위원

12층 건물이기 때문에 종로구 한복판에 큼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줄서, 그러니까 그 공간이 모자라거나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길으로는 줄서있고 이런 거 못 봤고요.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위 원 장(○○○ 위원)

만약에 적정으로 판정되면 그런 거를 다 조사하라고 적으시죠.

○○○ 위원

그렇죠.

○○○ 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위 원 장(○○○ 위원)

검토를 하라고,

○○○ 위원

수요하고 이게 공급,

위 원 장(○○○ 위원)

공간의 수요가 진짜 있는지, 공간 수요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하다.

○○○ 위원

에 대한 엄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 위원

예를 들자면 외국의 사례에서, 외국에서 만약에 도쿄에서 외국인 몇 명 당 이런 센터가 활용되고 있는지,

○○○ 위원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

이런 것까지 해서요.

○○○ 위원

없는, 저는 촌에, 미시건 촌에 살았는데 없더라고요.

○○○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가 살 때도 없었어요.

○○○ 위원

예, 없어요, 전혀요.

위 원 장(○○○ 위원)

우리만 너무 친절하죠.

○○○ 위원

우리가 적응 못 하면 ‘너 나가라.’ 이거지, 거기가 아무리 다문화사회이지만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 위원

죄송해요.

다시 부적정으로요.

○○○ 위원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하면서 외국지원시설이 조금 조그마하게 있는 것들을, 제 기능들을 못 하는 것을,

위 원 장(○○○ 위원)

정리.

○○○ 위원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 위원

정리를 해도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은, 현재 있는 곳을, 있는 데를 다 모으기는 힘들 거예요.

하던 대로 하도록,

○○○ 위원

그게 민족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광진 나왔는데 그거는 몽골 사람들 위주요.

위 원 장(○○○ 위원)

몽골 위주, 광진은요.  
우주백.

○○○ 위원

그게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 위원

행정편의적으로요.

○○○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마치 이름이 타당성이지만,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그냥 계획 수립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 위원

공간계획을,

○○○ 위원

예.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이런 거는요?

위 원 장(○○○ 위원)

아니죠?

○○○ 위원

아닙니다.

○○○ 위원

아니예요?

○○○ 위원

예.

구상단계이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시려고 실태조사라  
든지, 그런데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지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작은 상담소 정도의 작은 규모에 있는 그런 지원시설들을  
그룹핑화 해서 체계화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제1글로벌센터가 너  
무 지역적으로 편중이라든지 24, 25개 구를 다 커버하기에는, 12개 층  
이 있지만 거기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다 다르거든요, 아시겠지만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수요가 많은 그런 데도 있고, 지  
원하기에 다양한 지역에서 온,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간 특색을 뒀서 2글  
로벨센터를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한 방향은 좀 정해져있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세부적인 자료수집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이라  
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그 부분을 더 강조하시는 조건하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까 제기하신 것 중예요.

그런 기본 타당성,

○○○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당성검토가 확실하게 먼저 이루어  
지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든 말든, 기존 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역  
별, 만약에 특색별로, 나라별로 따로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렇다  
면 같은 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그것을 갖다가 분리해가지고, 그  
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 자체를 갖다가 나눈다든지, 그런 방법이 훨씬  
좋은데 쓸데없이 이렇게 만들 필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실제로 상황  
이 그렇다면요.

○○○ 위원

글쎄,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이거는 그만해야 되는지 몰라도, 이게  
여기에 보면 ‘아예 설계한 조감도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다도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정말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또 실태가 예  
를 들면 그런 공간적인 문제인지, 그게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5,000만 원 용역은 굉장히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죠.

○○○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 타당성검토를 먼저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재검토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위 원 장(O O O 위원)

기본계획을 다음에 한다고요?

O O O 위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기본구상을요?

O O O 위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또 바뀌었습니다.

O O O 위원

그러게요.

위 원 장(O O O 위원)

하여튼 타당성 용역 중심으로 하고, 기본구상과 설계안은 사실은 여기 내용상에 많은 내용은 아닌데요.

그런데 타당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규모가 나오고, 어떻게 할지가 있어야 사실은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뻔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용은 들어가야 기본구상은,

O O O 위원

조사는 있죠.

**제19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제가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에 넘기고요.

간 사(시정연구팀장)

예.

위 원 장(O O O 위원)

내용에 따라서 축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기본구상과 기본설계안은 아니고, 기본구상 정도로 해서 사업타당성 중심으로 사업을, 용역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앞에 말씀드린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제17호 안건**

**서울시 공공형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위 원 장(O O O 위원)

가족담당관에서 오셨죠?

제17호 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장 000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앉으세요.

저희가 내용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이에요, 발표는 안 하셔도 되고 주심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에서 질문하시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호 안건심의**

O O O 위원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사실 아동복지법 개정하면서 육아센터를 위탁운영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가지고, 결국 민간위탁으로 정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17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그런데 사실 특성을, 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조사라든지 임의동행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사법적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이나 원래 논의 단계에서는 공공으로 가는 게 맞는 것으로 원래 정리가 됐었다가, 법, 현 상황으로 어쨌든 민간으로 하

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향후에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추진하시는 건가요?

제17호 안건설명자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그 정부공약으로 하고 있는 게 공공형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시작이 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복지부에서 공공형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국적으로 다들 공공형으로 추세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

〇〇〇 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공공이 하나 민간이 하나, 운영하면 이게 만약에 정확한 조사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몇몇 사건들이 과거에 그 이미 조사관계를 거쳤는데, 결국 아동이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이 만약에 일을 잘못하면, 잘못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보면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제17호 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〇〇〇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17호 안건설명자

사실 아동학대업무라는 게 죽음에까지 아동이 이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민간에다가 전가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을 민간이 책임을 지는 것보다, 공공이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〇〇 위원

글쎄요, 이거를 추진하는 계획을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하시겠지만, 책임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운영의 실제적인 방안과 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까지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17호 안건설명자

예.

〇〇〇 위원

이상입니다.

위 원 장(〇〇〇 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타당성 조사하려면 입지선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아니면,

제17호 안건설명자

네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꿈나무마을토지라고 은평구 응암동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 원 장(〇〇〇 위원)

은평구, 예.

제17호 안건설명자

거기랑 그리고 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에 부지가 남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하나 가지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시유지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조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위 원 장(〇〇〇 위원)

‘조사 나가는 중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기본계획수립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나와야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상당히 학술이 아니라 기술용역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용상 보면 ‘평면을 그려라, 공간 활용, 단면은 어떻게 찢다.’ 이런 것들은,

제17호 안건설명자

맞습니다.

위 원 장(〇〇〇 위원)

사실은 기술용역 쪽이라, 그렇죠?

제17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현재 2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학술용역만 추려가지고 상당히 짊  
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17호 안전설명자

제가,

위 원 장(O O O 위원)

예.

제17호 안전설명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까지 준공이 돼야 됩  
니다.

사실 그래서 기본계획이랑 타당성조사를 따로 하는 게 맞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붙여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기술용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요.

학술용역에 붙일 수가 없잖아요.

제17호 안전설명자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위 원 장(O O O 위원)

그래서 기술용역을 빨리 하시든지 어떻게,

O O O 위원

그럼 이게 설치를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제17호 안전설명자

예,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의 용역으로는 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O O O 위원

아니 타당성조사가 어차피 할 건데 왜 필요하죠?

위 원 장(O O O 위원)

아니요, 예타를 해야 또,

제17호 안전설명자

절차이기 때문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투자심사에 예비타당성검토가 있어야 그다음에 돈이 나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주심위원님은 걱정으로 판단하셨고요.

O O O 위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직담당관에서는 ‘학술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O O O 위원

예,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정 부분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은 학술에서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별  
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별도의 기술용역을 내년에 같이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를 저희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정이 늘어지면 내년 용역 한 개만 해버리고, 일을 못 하는 일  
도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 원 장(O O O 위원)

예, 그러니까는 학술과 기술을 분리할지의 여부는 조직담당관에 넘기겠  
습니다.

O O O 위원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호 안전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그거를 전제로 해서 본 안전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제15호 안건**

**서울시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개발**

위 원 장(O O O 위원)

앞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오셨고요.

제15호 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주심위원님께서 바로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답을 하시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제15호 안건심의**

O O O 위원

폭력여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가정에서 회복이 어려운 폭력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내지는 자립지원모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15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그런데 이런 형태의 각종 자립지원모델 중에 성공한 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15호 안건설명자

그거는 관점을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폭력피해자라고 하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을 저희 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매매 같은 경우도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치유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보았는데, 이때 까지 입소한 인원 52명, 50여명이 전원 취업이 돼서 나가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O O O 위원

아마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보시면, 그게 각종 자립이 거의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정말 거기 모델을 제대로 개발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지도 못할 걸 만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자립 관련 모델들이요.

그래서 제대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15호 안건설명자

알겠습니다.

제한 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위 원 장(O O O 위원)

아니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성공적인 자립의 사례를 많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립의 사례를 양도 있지만 질도, 그렇죠?

질도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되신다면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피해여성 상담복지와 관련된 제한경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5호 안건설명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예를 들면 명수가 적다고 해서 쉬운 용역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용역이고 기간도 8개월이 적당하다면, 비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15호 안건설명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 원 장(O O O 위원)  
 왜 이렇게 조금 신청하셨어요?  
 제15호 안건설명자  
 가용재원이 이렇게 좀 지가 없어서, 올해 예산에서 받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자체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요?  
 제15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예산과하고 더 드리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15호 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위 원 장(O O O 위원)  
 주심위원님 의견.  
 O O O 위원  
 걱정 의견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3,000만 원가지고 8개월을, 어디는 아까 1,500만 원 2개월 한다고 그러  
 고요.  
 O O O 위원  
 낙찰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위 원 장(O O O 위원)  
 그렇죠?  
 이거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예산담당관에서 좀 보태주시는 것으로요?  
 O O O 위원  
 예산과 와 계시니까 저희가,  
 위 원 장(O O O 위원)  
 예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B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요구가 안 되어 있는데 심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당장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쓰면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B  
 근거를 떠나가지고 절차상 예산요구 시기가 지나버려서,  
 위 원 장(O O O 위원)  
 지났죠?  
 예산담당관B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B  
 나중에 조정위 같은 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의제기 식으로 올릴 수  
 는 있는데, 그거는 여성가족정책실 내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되겠습니  
 다.  
 이 사업을 올리면 다른 사업을 올릴 수 있는 거를 포기해야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O O O 위원  
 이 과제를 이 돈으로 하려면 연구기간도 줄여주고,  
 위 원 장(O O O 위원)  
 그러니까요.  
 O O O 위원



차라리 수의계약으로 이거를 형태를 바꿔줘야지, 안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위 원 장(O O O 위원)

이게 8개월 하라고 그러고 3,000만 원, 8개월 오라 가라 할 거 아니에요?

O O O 위원

참여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은 의견을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제출하시면,

위 원 장(O O O 위원)

위원회 의견을 제가 적고요.

O O O 위원

적정으로 해주시면 의견을 달아서 보내겠습니다.

**제15호 안건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으로 하고요.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재심이죠.  
포괄비 재심입니다.  
한식문화요.

**제12호 안건**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위 원 장(O O O 위원)

앞으십시오.  
박물관과에서 오셨습니다.

제12호 안건설명자A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저희가 이거는 재심의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한번 봤고, 그래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주심 위원님이, 그러니까 발표는 안 하셔도 되고 주심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답하시고, 그다음에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제12호 안건심의**

O O O 위원

지난번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요?

제12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그때 지난번에는 용역비가 7,0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이번에 3,500만 원으로 용역비가 줄고, 그에 따른 학술용역 기간도 3개월도 줄었고요.  
그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타당성분석비용을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 큰 과업명은 거의 비슷한데 삼청각 있는 부지 자체가 근처에 한국가구박물관도 있고 길상사도 있고 성북지역에 굉장히 지역에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방안을 과업내용에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O O O 위원

그러면 한식문화관의 건립의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한식 그 문화관의 어떤 기본안을 구성하는 거예요?

제12호 안건설명자A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본구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내용 자체는 타당성조사라고 했지만 어쨌든 기본구상, 기본계획이 주가 됩니다.

O O O 위원

그런데 있는, 장소는 있는 거고, 그렇죠?

제12호 안건설명자B

예.

O O O 위원

그 대신 그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에 어울리는 한식문화

관의 내용이 어떤 게 될지 이걸 조사하는 거죠?

제12호 안전설명자A

예.

O O O 위원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요즘에 유사한 문화관, 기념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12호 안전설명자A

한식 관련해서 보면 정부에서 하는 케이스타일허브라고 관광진흥공사에 거기에 있기는 한데, 그리고 말고 사립에서 운영하는 뮤즈엄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관광진흥공사에서 하는 게 건물의 2층하고 4층을 활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관람객이 58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지 자체가 삼청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한식 관련해서 그러고요.

저희가 이거를 안 하더라도,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가 찾아가는 장소이니까 여기 한식문화관을 짓는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북지역의 주요한 자원들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지난번에 부적정 판정을 하고 예산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 줄이고 내용 축소해서 다시 가져온 그런 안입니다.

주심위원님의 의견 듣고 토론하겠습니다.

O O O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쪽에 있는 문화자원, 어차피 거기에 사람이 삼청각에 많이 방문하고 있고, 한식문화관 정도는 있는 게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2호 안전결론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본 안건은 적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13번입니다.

제13호 안건

DDP 미디어파사드와 빔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위 원 장(O O O 위원)

디자인정책과에서 오셨고요.

제13호 안전설명자

예.

위 원 장(O O O 위원)

앞으십시오.

제13호 안전설명자

디자인정책과팀 000입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본 안건도 저희가 다 내용을 토의를 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심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호 안전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발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13호 안전심의

O O O 위원

여기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13호 안전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〇〇〇 위원

이게 걱정한 건가요?

제13호 안전설명자

사업비는 10개월로 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2억으로 일단 산출을 한 상태입니다.

〇〇〇 위원

그런데 이게 빚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구축방안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제13호 안전설명자

예.

〇〇〇 위원

그런데 '10개월에 2억이라면 좀 액수가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13호 안전설명자

이거는 아마 국내에 축제를 활용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 선행연구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또 해외 다수들의 어떤 도시들이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연구조사라든지, 또 그 연구조사를 통해서 진단하고 그다음에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과업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10개월에서 2억 산출한 것입니다.

〇〇〇 위원

그런데 해외에 출장 가는 게 있더라고요.

쪽 여러 도시들 빚축제를 돌아보는 게 있는데요.

제13호 안전설명자

예.

〇〇〇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예산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예산안을, 주신 예산안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국외출장기간이 18일 이렇게 해가지고 출장인원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사업비의 9.3%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제13호 안전설명자

나머지는 거기 그 연구원하고 책임연구원 보조원들 인건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〇〇〇 위원

왜냐하면 다른 이전에, 기존에 다른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연구원들 비슷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액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연구원 한 명, 책임연구원 한 명, 연구원 두 명 똑같은 규모인데, 이거는 조금 액수가 너무 10개월에 2억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13호 안전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〇〇〇 위원

그리고 사실 그 'DDP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빚축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게 그것 때문에 DDP를 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DDP를 가야 된다면 굉장히 특성화, 그리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사실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빚을 활용한 그런 부분은 도시의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특성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조사를 한다는 건데, 그렇죠?

제13호 안전설명자

그렇습니다.

〇〇〇 위원

예.

그런데 그 특별한 그런 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13호 안전설명자

현재는 보시면, 아마 주간에는 거의, DDP가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

디드가 설계를 해서 명소화 된 건축물입니다.

지금까지 연간 한 9만 명 이상이 방문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녁에는 콘텐츠가 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빛만 그냥 LED로 밝기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 동대문상권하고 DDP가 처음에 그러한 것까지 충분히 동대문상권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은 그러한 주간 때에, 야간 때는 조금 미흡한 그런 상황이라서, 특별히 저녁에는 DDP가 주변 상권하고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나중에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까지도, 파급효과까지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DDP 안에 보시면 또 물론 건물도 있지만, 그 뒤에 역사문화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녁 때 되면 물론 사람들이 오지만, 그쪽이 활성화도 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에 그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어떤 그 기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서울시에서 한강변에서 기존에 빛축제를 해서, 한 것 중에 성공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제13호 안건설명자

한강,

○○○ 위원

해보신 적 없죠?

제13호 안건설명자

이 부분은 미디어파사드 그 부분은 사실은,

○○○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서울시에서 빛을 이용한, 또 빛이란 말을 넣어서 축제를 해보신 적 없으시죠?

잘 모르시죠?

제13호 안건설명자

불꽃축제 이런 거는 있었어도 빛축제는 사실,

○○○ 위원

잘 모르시죠?

제13호 안건설명자

예.

○○○ 위원

저는 집이 그쪽이라가지고, 축제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모르시니까 시민들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이요.

제13호 안건설명자

그래서 조금 더 그러한 것을,

○○○ 위원

왜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지, 또 과거에 서울시에서 빛을 이용한, 야간에 등등빛 그런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가보면 조악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잔디밭이 이래해 놓고 크게 붙여놓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라디오방송이나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었던거구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후속질문을 사실 못 드릴 것 같아요.

제13호 안건설명자

그런데 최근에,

○○○ 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 과거에 비슷한 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성공요인은 뭐고 실패요인은 뭔가 이게 전혀, 그거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시니까요.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볼까, 서울시요?

제13호 안건설명자

예.

최근에 도시계획정책과에서 서울의 도시빛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서울의 곳곳에 빛을 활용한 여러 가지 지역을 활성화하는 문화콘텐츠 이러한 사항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역시 DDP를

중심으로 해서, 동대문구 상권과 같이 연계한 그런 쪽의 어떤 경제 활성화나 또 여러 가지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위 원 장(O O O 위원)

청계천 루미나리는 아닌가요?

O O O 위원

그게 여기에 뜬니다.

서울빛초롱축제 해가지고,

제13호 안건설명자

빛초롱축제는 청계천에서 한 겁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청계천은 굉장히 많이,

O O O 위원

그러니까 빛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성공사례가 뭐냐니까, 선생님이 전혀 자료를 안 보시니까 안 떠오르시는 거죠.

제13호 안건설명자

미디어파사드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O O O 위원

‘반면에 그 실패사례는 뭐냐.’ 이러니까 또 빛으로 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제13호 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까.

빛초롱축제는 압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좀 개념이 틀려서, 사실 나중에 그러한 콘텐츠는 연계를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O O O 위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런 거를 묘사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제13호 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미디어파사드라고 해가지고, 뉴욕이라든지 시드니에 여러 가지 그런 조명빛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그 일대를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O O O 위원

특셈에서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특셈은 전혀 효과 없고, 청계천은 정말 구경해 볼만 하던데요.

제13호 안건설명자

예, 청계천은 잘되고 있습니다.

O O O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사례들도 좋지만요.

제13호 안건설명자

국내 사례로 저희가 분석하고요.

다 해서,

위 원 장(O O O 위원)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가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꼭 있지 않는 한, 그렇지 않죠?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예를 들면 어떻게 했는지를 하는 건지, 정말로 기획한 사람을 만나서 또는 거기의 회사를 만나서 정말 면담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산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13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여기 기본인건비에 보니까 상여금이 있는데요.

제13호 안건설명자

예.

O O O 위원

이거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O O O 위원

노임이 잡히면 따라가는 거죠.

O O O 위원

따라가는 거예요?

○○○ 위원

그래서 한 1억2,000만 원인가가,

○○○ 위원

10개월이러서요.

○○○ 위원

400% 이내에 자율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 위원

예?

○○○ 위원

한도가 있습니다.

400% 이내까지만,

○○○ 위원

예, 40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주는 거죠?

○○○ 위원

예.

○○○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2억을, 전체 용역비도 2억이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다음에,

○○○ 위원

인건비 비율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 위원

예,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국외출장비,

위 원 장(○○○ 위원)

구축방안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제13호 안전설명자

구축,

위 원 장(○○○ 위원)

여기 구축방안 연구잖아요. 그렇죠?

제13호 안전설명자

예.

위 원 장(○○○ 위원)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

제13호 안전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 위원)

실행계획까지 나오는 건가요?

제13호 안전설명자

저희는 이것을 종합로드맵하고요.

그다음에 실행계획까지,

위 원 장(○○○ 위원)

실행계획까지 나온다?

제13호 안전설명자

그래서 거기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 과업을 합니다.

○○○ 위원

10개월을 하는데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제13호 안전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10개월이나 용역을 하는데요.

제13호 안전설명자

로드맵하고 다 합니다.

○○○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빗축제가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법인지부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빗축제를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빗축제라는 것을 신기해하고 놀라지만, 이미 빗축제에 대해서 여러 경험치가 있는데, 빗축제를 새로 도입한다고 사람들이 그거에 호기심이 들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빗축제를 한 거에 대한 효과가 과연 이게 2억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일단 보여주는 시각적인 것보다 이제는 사람들이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에 더 반응을 하거든요.

제13호 안전설명자

맞습니다.

OOO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내용을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13호 안전설명자

저희가 사실 그래서 스토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그 동대문역사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데, 야간에는 굉장히 주변하고도 부조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미디어파사드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 부분의 공원까지도 저희가 미디어파크로 하고 그 안에 실내도 들어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과업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OOO 위원

사실 국외 여러 군데를 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DDP의 빛축제를 잘못은 아니지만, 약간 수준이 낮게 났다면 오히려 세계 여러 나라하고 비교해서,

제13호 안전설명자

맞습니다.

OOO 위원

‘뒤늦게 따라하면서 이게 뭐냐.’

사실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사실 축제가 너무 많아요.

제13호 안전설명자

예.

OOO 위원

그런데 사실은 수준미달이 또 너무 많거든요.

OOO 위원

특셈빛축제 이런 거,

제13호 안전설명자

저희가 이번 연구용역을 해보는 이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뭔가 분석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또 질문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제13호 안전설명자

감사합니다.

위 원 장(O O O 위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설명자 퇴장. )

추심위원님 의견 듣고, 의견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요.

OOO 위원

사실 DDP 공간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밤에 많이 활용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거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예산을, 인건비 같은 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서, 사실은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 방안 가운데 이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겠거니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아주 많이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예?

OOO 위원

아주 많이.

OOO 위원

왜냐하면 청계천 그 운영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유심히 이런, 아까 언급했던 여섯 개 도시 정도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항상 모니터링 할

것 같아요.

○○○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외출장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면 인터뷰하고 이런 건데 대부분 인건비가 1억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이렇게 할지도 진짜 모호하고요.

○○○ 위원

왜냐하면 또 이 빚축제를 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하고도 어울리고, 또 주변의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 위원

아니면 ‘지역 그 자체를, 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역 자체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2억 정도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는지 그러겠는데 이것을,

○○○ 위원

해당 구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위원

내용하고 예산으로 봐가지고는 완전히 감사대상일 것 같아요.

위 원 장(○○○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출장의 경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그것도 한번 조직담당,

○○○ 위원

예,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위 원 장(○○○ 위원)

예, 누구를 만나든지요.

○○○ 위원

기술을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해야죠.

**제13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

보러 가는 거는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 안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그래서 본 안건도 적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의결서 마지막에 꼭 사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사인하는 또 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종 사인하는,

위 원 장(○○○ 위원)

저기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 것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폐 회 17시47분.(2018년 9월학술용역심의회 (3일차))